





중학교 자유학년제 활용 교재

[사건 편]



새로운 경기

경기문화재단
공정한 세상
경기학연구센터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경기도 역사와의 만남!

- 2016년은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해입니다.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현재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자유학기제를 설계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찾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과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자유학년제를 통해 다양한 교실 수업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 천년에 즈음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찾아보는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이 살아온 경기도는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집필진은 모두 경기도의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 인물, 문화유산, 사건 등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역사를 공부한 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1학년을 지나 2학년부터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자연스럽게 역사를 연계하여 공부할 교육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자유학년제에 적용 가능한 역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대주제 중에서 이 책은 '경기도의 사건 편'입니다. 사건 편에서는 경기도라는 지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경기도로 자리 잡았는지를 알아보고, 경기도의 국난극복과 문화 발전 모습, 평화와 미래를 이끄는 경기도의 모습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그 속에서 경기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의 사건은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는 경기도의 형성,

둘째는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

셋째는 경기도의 문화 발전 노력,

넷째는 평화와 혁신을 이끄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교 학생들이 본 교재를 활용하여 경기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 이 교재를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단원

경기도의 형성

- 1차시 경기의 첫 시작 12
- 2차시 조선 건국과 경기의 변화 22
- 3차시 근대의 경기도 32
- 4차시 현대 경기도의 변화 42

2단원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

- 5차시 경기도의 대몽 항쟁 54
- 6차시 경기도의 양난 극복 64
- 7차시 경기도의 국권 수호 운동 74
- 8차시 경기도의 독립 운동 84

3단원

경기도의 문화 발전 노력

- 9차시 경기도가 이끈 조선 후기 경제 발전 96
- 10차시 조선의 신도시 화성 건설 106
- 11차시 경기도가 주도한 조선후기 문화발전 116
- 12차시 근대 교육의 산실 경기도 126

4단원

평화와 혁신을 이끄는 경기도

- 13차시 경기도의 민주화 운동 138
- 14차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152
- 15차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162
- 16차시 미래산업의 중심, 경기도 172

참고문헌 182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전체 구성은 연표, 생각 열기, 역사 속으로, 생각 나누기, 생각 더하기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 연표

이야기 속 경기도의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함께 제시하여 각 사건들이 개별적인 사건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과의 인과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생각 열기

학생들이 경기도의 사건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화와 글로 구성하였습니다. 생각 열기의 내용은 사건과 관련된 경기도의 인물, 행사, 지역, 문화유산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역사 속으로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개 단원 16개의 이야기를 연대기적 구성을 통해 서술한 것이 아니라, 설정된 4개의 주제를 통해 각 사건들을 주제별로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건별로 인물이나 문화유산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와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 생각 나누기

경기도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 논술과 토론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생각 더하기

경기도의 사건을 통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경기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형성_1

경기의 첫 시작

1차시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궁예, 송악을
도읍으로 후고구려
건국

왕건, 고려
수도를 송악으로
옮김

현종(9년)
경기제 완성

양광도, 고주도,
서해도 41현을
경기에 포함

경기를 좌도와
우도로 편제

901년

919년

1018년

1069년

1390년

918년

936년

고려 후삼국
통일
강감찬, 귀주에서
거란군 대파

1018년
《초조대장경》
완성

1087년
과전법 제정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경기 600년이라는 말도 있고
경기 1,000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

예?

경기천도와 우도를 통합하라!

1414년 조선 태종임금 때
경기천도와 우도를 통합해.
오늘날 경기의 영역과 거의 비슷해져.
그래서 2014년에는 경기 600년을
기념했었지.

그럼 경기 천년은 어디서
생긴 말이에요?

그건 고려의 현종임금 때인
1018년에 '경기'라는 용어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그래서 2018년을
경기 천년의 해라고 한 거야!

1000
경기천년 1018
2018

경기 600년, 경기 천년 여러분도 헷갈리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이름이 600년을 넘어 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경기 천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려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경기는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경기’간 무슨 뜻일까?

경기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고려 시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이랍니다. 그래서 다들 경기 천년이라고 한답니다.

경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기란 왕도(王都)의 외곽 지역을 의미하는데, 당나라에서 왕도의 주변을 경현(京縣:赤縣)과 기현(畿縣)으로 구분하여 통치한 데서 비롯하였다. 919년(태조 2)에 왕건이 송악 남쪽에 수도를 정하여 궁궐을 짓고 이를 개주(開州)라 하였다. 995년(성종 14)에 개주를 개성부(開城府)로 승격시키고 적현 6개, 기현 7개를 관장하게 했다가 1018년(현종 9) 개성부를 폐지하고 13현 가운데 송악현은 경중(京中) 5부(五部)로 개편하면서 폐지하고 나머지 12현을 경기로 구획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 두산백과

백과사전 내용을 읽어 보아도 알쏭달쏭 잘 모르겠죠? 그럼, 하나씩 풀어봅시다.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에 있는 책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 책은 『고려사』라는 책입니다. 고려 시대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조선왕조실록』이 뭔지 알고 있죠? 『고려사』는 고려 시대 왕조실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책이란 건 알겠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한자를 썼으니까요.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顯宗九年, 罷府置縣令, 管貞州·德水·江陰三縣, 又長湍縣令, 管松林·臨津·鬼山·臨江·積城·坡平·麻田七縣, 俱直隸尙書都省, 謂之京畿。
—『고려사』 권56 「지」 권제10 [지리 1]



『고려사』에 실려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현종 9년(1018)에 개성부라는 행정 구역을 없애고 개성현령은 3개의 현¹(정주, 덕수, 강음), 장단현령은 7개의 현(송림, 임진, 토산, 임강, 적성, 파평, 마전)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 행정 구역은 상서도성이라는 관서에 직속시키고 이를 경기(京畿)라 불렀다.

¹ 행정 구역으로 오늘날의 시, 군, 구와 같은 의미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되나요? 고려 건국 초기에는 개성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현종 때 이를 없애고, 주변의 현을 모아 ‘경기’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역사가 1,000년이나 되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야기
둘

고려의 건국과 수도 개경

신라 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운 호족 세력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호족이 견훤과 궁예입니다. 900년에 견훤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뒤이어 901년에 궁예도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지금의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아우르며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이제 신라 왕은 경주를 중심으로 작은 지역만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때를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가장 힘이 썼을까요? 처음엔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가장 썼답니다. 견훤은 신라 장수 출신인데다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고, 서해 바다를 통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신라를 공격하여 신라 사람들은 견훤을 아주 무서워하였습니다.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절에서 자라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 세력을 키운 후 901년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궁예는 병사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워 후삼국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궁예가 세력을 확장하는 데는 왕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왕건은 송악(개성)의 호족이었는데 궁예를 도와 충청도 지방으로 세력을 넓히고, 바닷길을 이용하여 후백제의 안방과도 같은 나주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공으로 왕건은 최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궁예는 점점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궁예에 불만을 가진 신하들은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918년 왕건은 왕위에 오른 뒤 나라 이름을 ‘고려’라 짓고 후삼국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왕건은 이듬해 자신의 고향인 송악(개성)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호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높은 벼슬을 내려 주기도 하고 혼인으로 친척 관계를 맺거나 왕씨 성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호족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전쟁과 지나친 세금으로 고통 받던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줄여 주어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은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여 경주를 점령하고, 신라 경애왕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요청에 응답하여 도우러 온 고려군을 공산성(지금의

대구)에서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이때 왕건은 목숨만 겨우 건지고 돌아갔지요(927년).

고려는 비록 공산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지만, 호족들을 자기편으로 더욱 끌어들여 힘을 모았고 마침내 고창(지금의 안동)에서 후백제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번에는 견훤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930년). 고려의 승리 소식에 그동안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호족들이 앞 다투어 고려 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후백제에서는 견훤과 아들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견훤이 왕위를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물려주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맏아들 신검이 동생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왕위에 오른 것이지요(935년). 금산사에 갇혔던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 왕건에게 항복하였고, 왕건은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해 말 신라 경순왕은 신하와 백성을 데리고 고려에 투항하여 나라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견훤을 따르던 후백제 장수들이 고려에 항복하면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는 급격하게 힘을 잃어버렸지요. 마침내 왕건이 이끈 고려군이 후백제의 도읍인 완산주를 점령하였고(936년), 왕건은 후삼국 분열이 끝나고 삼한이 다시 통일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거란에게 멸망한 밀해의 유민들이 고려로 오자 이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경기의 변화

의야기 셋

고려는 1018년(현종 9)에 지방 행정 조직을 크게 개편합니다. 현종 이전까지는 중앙의 행정력이 국가 전체를 관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1018년에야 비로소 오늘날의 시, 군, 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군과 현 단위까지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고려 영역 지도(오른쪽)와 지방관이 파견되는 장면(왼쪽)

현종 때 지방 행정 조직 개편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경기’의 운영입니다. 개성부를 없애는 대신 개성현과 장단현에 현령을 두고 각각 3현과 7현을 관할하게 하면서 이를 ‘경기’라 칭하였습니다. 왕이 거주하는 도읍은 직접 왕이 관할하고, 이를 둘러싼 ‘경기’를 개성현령과 장단현령이 서로 나누어 관할하게 한 것입니다. 개성현령과 장단현령이 경기를 양분하여 다스리게 되면서 왕경은 독립하여 중앙 정부의 직할이 되었고, 경기는 지방 행정 조직으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경기는 여러 차례 변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1062년(문종 16)에 개성부가 다시 설치되면서 지부사가 장관이 되어 경기를 다스림과 동시에 양광·교주·서해도로부터 39현을 분할 받아 원래의 경기 13현과 함께 52현의 아주 큰 경기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원래의 경기 지역으로 축소되더니, 몽골 침입 이후에는 경기 8현으로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1390년(공양왕 2)에는 문종 때 확대되었던 영역과 비슷하게 재편되어 총 44현을 관할하면서 처음으로 도 단위의 지방 조직으로 바뀌고 장관도 도관찰출척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때 경기는 좌도와 우도로 나뉘게 되고 개성부는 자연히 왕도만을 다스리는 기구로 변하여 도평의사사²에 직속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니 왕경의 행정을 맡은 특별 기구로서의 개성부와 일반 지방 행정 구역으로서의 경기좌도와 우도가 학립된 것입니다.

이때 경기의 영역은 개성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남경(서울)·당성(경기도 화성시 남양)·금주(서울시 구로구 시흥)·과주(경기도 과천), 서쪽으로는 안주(황해도 재령)·연안, 동쪽으로는 철원과 포주(경기도 포천), 북쪽으로는 곡주(황해도 곡산)·수안(遂安)에 이르는 범위로, 관할하는 현(縣)의 수는 문종 때보다 적으나 실제 영역은 그보다 확대된 규모였습니다.

고려시대 ‘경기’는 중앙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고 왕권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교화하는 일반적 지방 행정 역할과 더불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실과 왕궁을 보호하고 보좌하며 왕경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 중앙 행정 기구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중앙 정부의 권력이 완전히 지방을 장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하는 지방관이 있는 군현은 30개소에 불과하였고, 지방관이 배치되지 않고 지방의 향리가 다스리는 속군과 속현이 300여 개소나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의 지방 통제가 강화된 것은 조선 시대에 들어서부터입니다.



² 고려 시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한 기구. 고려 전기에는 도병마사라고 하였다. 도당이라고도 한다.

고려 시대 경기의 강역 변화



1. 1018년(현종 9)에 ‘경기’를 실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2. 다음은 ‘경기’ 제도의 변천입니다. 같은 것끼리 찾아선으로 이어보세요.

1018년(현종 9)



- ◎ ◆ 개성부가 다시 설치
- ◆ 양광·교주·서해도로부터 39현을 분할 받음
- ◆ 모두 52현으로 확장

1062년(문종 16)



- ◎ ◆ ‘경기’ 선포

1390년(공양왕 2)



- ◎ ◆ 총 44현을 관할
- ◆ 도 단위 지방 조직 전환
- ◆ 경기좌도와 우도로 나뉨

1. 경기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경기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논거를 제시하여 글을 써 보세요.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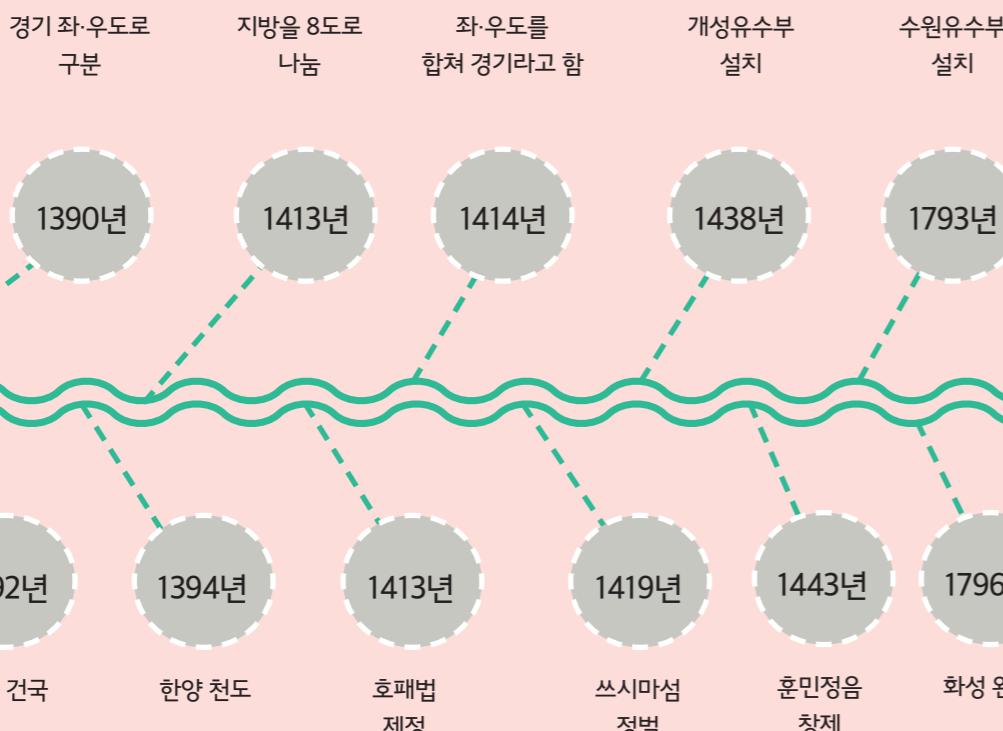
경기도의 형성_2

조선 건국과 경기의 변화

2차시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 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정종이 '제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되돌립니다. 개경과 한양을 각각 새로운 나라의 도읍지로 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1404년 태종은 한양 천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고려 태조가 도읍을 정한 방법에 따라 점을 쳐서 결정하기로 합니다. 태종은 점에 나온 결과대로 시행할 것임을 신하들에게 다짐합니다. 종묘에 들어가 동전을 던져 점을 쳤는데, 한양은 '2길 1흉'이었고, 송경(개경)은 모두 '2흉 1길'이 나왔습니다. 600년 조선의 수도 한양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경기의 영역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경기도가 지금 모습을 가지게 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볼까요?

이야기
하나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경기’라는 말은 고려 현종 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경기는 개성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영역과는 달랐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권문세족이 가진 토지를 빼앗아 새 왕조의 핵심 세력이 될 신진 사대부에게 나눠주는 과전법 시행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는 정책을 실시하여 새로운 왕조 개창의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는 좌·우도의 양도 체제로 1414년까지 24년 남짓 운용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의 모습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조선 초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임금이 계신 ‘경’의 위치가 바뀌자 ‘경기’의 모습 또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최고 의사 결정 기관

인 도평의사사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한양 천도를 서두른 이유는 고려 지배층이 그대로 존재하는 개경을 떠남으로써 그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한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어 무엇보다 군사적인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도읍지는 무엇보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조세를 거두기에 편리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금을 주로 곡식으로 거두었는데, 산이 많은 지형으로 인해 육상 교통보다는 주로 강이나 바다를 통한 수상 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한강 유역에 위치한 한양은 다른 곳과

비교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14세기 이후 논농사가 발전하면서 그 중심인 충청·경상·전라도 지역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그래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길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1394년 10월, 조선은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한양 천도는 이전의 ‘경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영역 또한 넓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경기와 지리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갖춘 것은 1414년(태종 14) 1월 18일에 경기 좌·우도를 고쳐 ‘경기’라는 이름을 정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안·곡주·연안 등 옛 경기도 북서부 지역이 풍해도(지금의 황해도)에 편입되었으며, 양주·광주·수원·여주·안성을 비롯한 옛 충청도 북부 지역이 경기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에는 경기도 철원과 안협이 강원도에 이관되었고, 충청도 죽산이 경기도로 편입되면서 오늘날의 경기도 모습과 더 육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 둘

日도 체제의 정비와 국가 근본의 땅 '경기'

조선시대에 경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을까요?

우선 조선의 행정 구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1413년 태종은 전국의 행정 구역을 8도로 나누었습니다. 8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로 조선 시대 대부분 기간 동안 유지하였습니다. 8도에는 각각 관찰사를 파견하였는데, 각 도의 행정·군사·사법을 포함한 도의 모든 업무를 관할하였습니다. 8도 아래에는 부·목·군·현이 있었는데, 고려 시대와는 달리 조선 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 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통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군에는 군수를 파견하고, 현에는 현감이나 현령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중 한 곳인 경기도는 다른 도와 여러 면에서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조선 시대에 '경기'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지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과 사대부들의 인식이었습니다. 한양과 경기의 관계는 나무 줄기와 뿌리의 관계였습니다. 한양을 나무와 물에 비유한다면, 경기는 뿌리와 샘과 같은 근원이었습니다. 1540년(중종 35) 중종은 경기관찰사 임백령에게 "나라에 경기가 있음은 나무에 뿌리가 있고 물에 샘이 있음과 같다. 경기의 정치가 잘되고 못됨은 나라 전체의 무게와 관계 된다."라고 하며 관찰사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경기관찰사들을 임명할 때마다 국왕은 교서를 내려 '경기가 국가 근본의 땅'임을 잊지 말도록 명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경기를 국가 근본의 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을까요?

아직 개성에 머물고 있을 때인 1392년 9월 11일 태조 이성계는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를 각각 담당하는 관리를 임명하며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습니다.

"경기는 왕실에 매우 가까우니 그 은덕을 선포하는 데는 마땅히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해야 한다. 이에 그대들을 보내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게 하니 나의 정치에 부합하게 하라. …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시행하여 나의 새로운 정치를 보필하라."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조 수립으로 인한 혜택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혜택을 왕실과 가까이에 있는 경기에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백성들이 새 왕조에 협력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근본의 땅'인 경기는 왕의 교회를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곳으로 경기 백성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기 백성들은 다른 도의 백성들보다 많은 조세와 부역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경기 일대의 왕릉 조성과 수리, 매년 이런 저런 왕의 행차에 따른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오는 경우에 그 부담도 경기 백성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성종 때 대사헌이었던 이극돈은 '경기인들의 부역이 번거롭고 무거운데다가 자질구레한 일도 다른 도의 10배나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새로운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지역으로 경기도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1446년(세종 28) 세종이 풍흉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토지세를 차등을 두어 거두는 법을 새로 만들어 시범 적용한 지역도 경기도였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도 모두 경기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이야기 셋

4유수부 체제로의 변화

유수부는 지방에 위치하면서도 8도에 속하지 않고 수도 한양의 중앙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특별 행정 구역입니다. 전국에 5개의 유수부가 설치되었는데, 그중 4개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바로 개성, 강화, 광주, 수원유수부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태조 이성계의 관향¹인 전주에 설치된 완산유수부입니다.

원래 유수부는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수도 방어와 옛 수도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고려와 조선에서 이를 본받아 설치하였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 수도인 개경 외에도 평양을 서경, 경주를 동경으로 지정하여 유수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서경은 고구려 계승 의지를, 동경은 패망한 신라의 민심 회유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 유수부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을까요? 조선 시대 유수부는 행정 기능보다 군사 기능이 강하였습니다. 이제 조선 시대 경기도에 설치되었던 유수부가 왜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지 알아봅시다.

경기도의 4개 유수부

중 제일 처음 설치된 곳은 개성이었습니다. 1438년(세종 20)에 설치된 개성 유수부는 종2품 유수 2명을 두었으며, 그중 1명은 경기도관찰사가 겸직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옛 수도를 관리하는 행정적 기능이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그 기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 큰

¹ 관향은 성씨의 시조가 태어난 지역을 말한다. 이성계는 전주 이씨로 조선 시대에는 왕실의 관향인 전주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전주에는 이성계의 어진(왕의 초상을 어진이라고 함.)을 보관한 경기전이 있다.



피해를 겪었던 조선은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유수부에는 각각 군대가 설치되었는데, 개성의 관리영, 강화의 진무영, 수원의 장용영 외영, 광주의 수어청입니다.

각 유수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강화유수부는 강화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강화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보면 세 갈래의 물줄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강화도로 흘러들어오는 세 개의 강을 뜻하는 것으로, 예성강과 임진강, 그리고 한강입니다. 예성강은 개성으로, 한강은 서울로 연결됩니다. 바닷길로 쳐들어오는 적이 강화도만 점령하면 강화도 주변 물길을 통해 개성과 한양에 닿을 수 있으므로 이곳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강화도는 우리 입장에서도 육로로 쳐들어온 적들이 수도를 공격하면 피란을 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몽골이 침입하였을 때, 고려는 이곳으로 수도를 옮겨 항쟁하였고, 조선 시대 정묘호란 당시 청이 침입하였을 때, 인조가 이곳으로 피란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1627년(인조 5) 유수부를 설치하고 그 휘하에 군영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691년(숙종 17) 외성을 축조하고, 1742년(영조 18)에는 무너진 외성을 벽돌로 다시 개축하여 1744년 완공하는 등 방어 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강화도를 상징하는 말로 '5진 7보 53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과 보는 큰 규모의 군사 시설이며, 돈대는 10여 명의 군사가 지키는 작은 군사 시설로 그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섬 전체가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광주유수부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백제의 옛 성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남한산성을 1621년(광해군 13) 새로 고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의 군사적 위협이 커졌던 1626년(인조 4) 본격적으로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을 개축하고 성안에 수어청을 설치하여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이곳에 들어와 후금과 싸웠습니다. 그 후 1683년(숙종 9)에 광주유수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광주유수는 수어사를 겸하였으며, 휘하에 6,000명 가량의 병력을 두었습니다.

수원유수부는 정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직전에 설치되었습니다. 1793년(정조 17)에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켜 정조가 설치한 국왕 호위 부대인 장용영 외영을 주둔시켰습니다. 정조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신도시인 화성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 한양 남쪽 방어와 왕권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유수부로 승격된 것입니다. 수원은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경기 남부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강화군 깃발



강화유수부



광주유수부 집무공간 좌승당



화성행궁의 봉수당



1. 조선 시대에 경기도는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되는 8도 중 하나였지만 다른 지역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혜택을 누렸고 어떤 불리한 점이 있었을까요?

혜택

불리한 점

2. 경기도에 4개의 유수부를 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도에 4곳의 유수부와 한양에 색칠을 하고 그 까닭을 적어 봅시다.



4곳의 유수부를 둔 까닭은 무엇인가요?

조선 후기 여지도

1. 대한민국은 수도권(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인구와 시설을 분산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정부청사나 세종행정수도가 대표적입니다. 오늘날 수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

◎

◎

2.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수도는 어디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그 수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의논해서 적어 보세요.

수도는 어디가 좋을까요?

그 곳을 수도로 정한 이유와 갖추어야 할 시설을 적어 보세요.

경기도의 형성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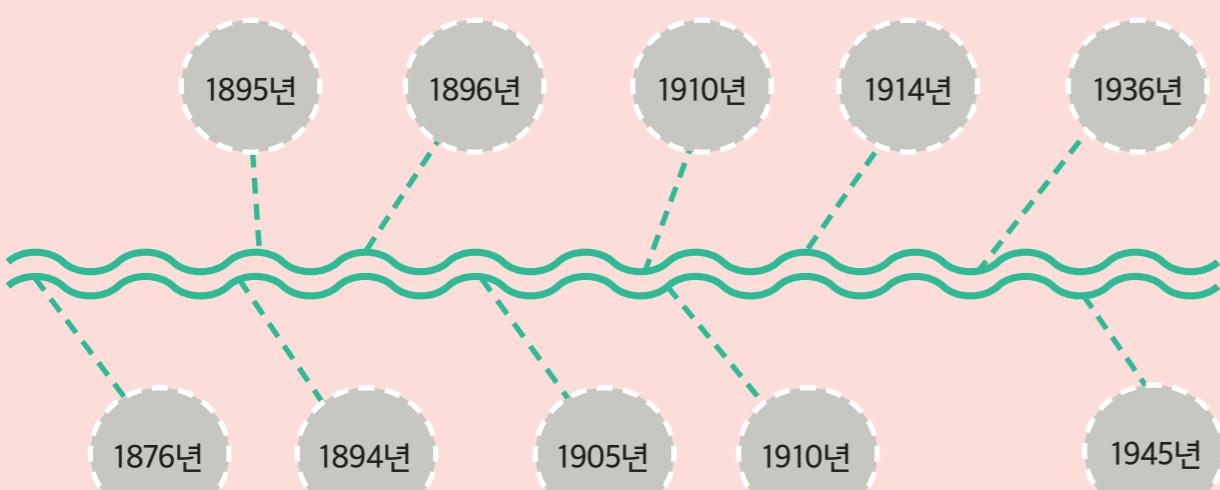
근대의 경기도

크루시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경기도가 23부로 나뉘어짐
23부에서 경기도로 다시 회복됨
경성부가 경기도에 속함
평택 남부 지역이 경기도에 편입됨
경기도 인구 2,392,296명을 돌파함
(일본인 포함)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조선 시대 내내 잘 지내던 우리는 바깥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커다란 파도를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힘센 나라가 총과 칼을 앞세워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함께 잘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라에 들어가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일본으로부터 서서히 침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일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행정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랜 세월 간직해 온 '경기도'라는 이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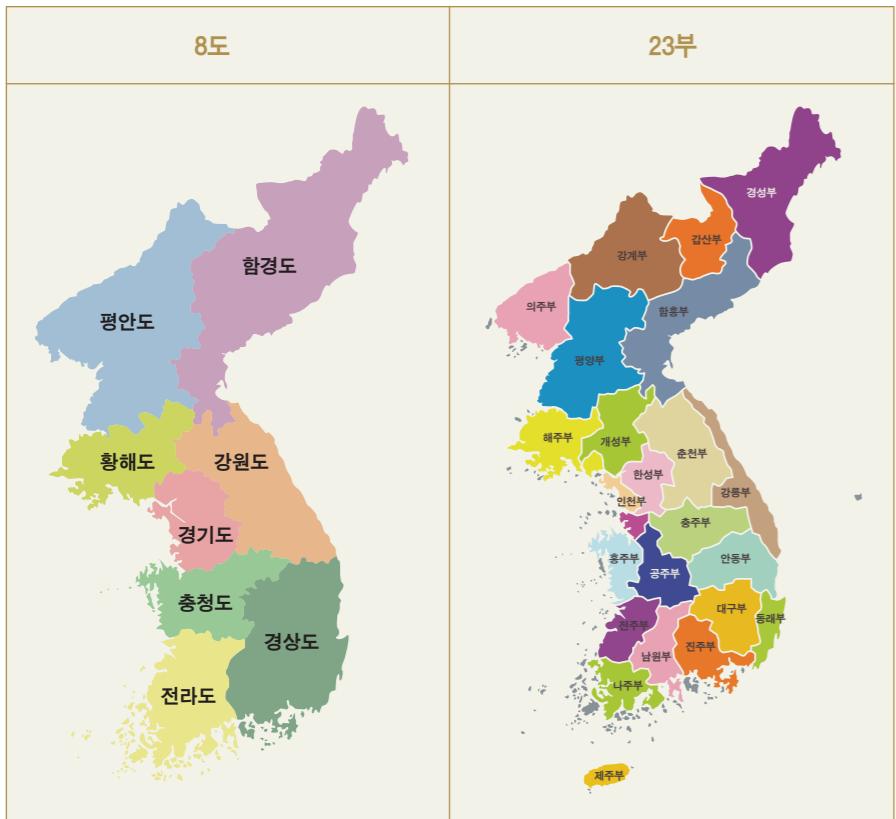
日도에서 23부 체제로

1894년 제2차 갑오개혁 때 지방 제도에 대한 개혁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95년 5월 26일에 대대적인 지방 행정 구역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즉,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어온 8도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23부제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종래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방 행정 구역을 총 337개의 군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23부 아래에 나누어 소속시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국의 도, 광역시, 시, 군 체제를 다시 편성하여 군 체제로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23부제는 1895년 6월 23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최상위 행정 구역을 부로 개편하고 그 하위 행정 구역 명칭을 군으로 통일하여 '부군제'라고도 부릅니다.

23부제는 일본이 1886년 메이지 유신 때 폐번치현(일본의 행정 구역 변화, 번을

폐하고 현을 설치하는 것)을 본떠서 시행한 지방 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지된 8도제에 익숙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색한 제도였습니다. 다음 지도는 8도에서 23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국을 23개 행정 구획으로 나누어 이를 '부'라고 부르며, 부의 장관인 관찰사, 그 외 참서관 1명과 주사 등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의 장관을 군수라고 하였습니다. 경무청이 설치되어 있던 한성



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에는 경무관을 두고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또 관찰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고을의 명칭을 군으로 통일하였으나, 구역을 변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면적과 인구의 차이가 심하여 각 군에 1등부터 5등까지 등급을 매겨 군수의 봉급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단, 한성군과 제주군에는 군수를 임명하지 않고 관찰사가 겸임 하였기 때문에 등급이 없었습니다.

23부제 실시로 경기도는 없어지고 한성부, 인천부, 충주부 등 여러 부로 나누어 졌습니다. 다음 지도는 현재 경기도가 여러 부에 편성되어 조개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3부 체제 하의 각 지역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였지만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감이 있었고, 너무 짧은 시간에 성급하게 접근하다보니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으로 의병 운동이 전개되면서 사실상 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23부제는 폐지되었고, 다시 도 중심의 지방 행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야기
풀**

23부에서 13도 체계화로

13도제는 1896년 8월 4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이전 해인 18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23부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조선 8도 중 남부(충청·전라·경상)와 북부(평안·함경) 5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어 13개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지도는 13도와 각 도의 행정 중심 도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3도	13도와 수부(행정 중심 도시)					
	도명	수부	군수	도명	수부	군수
평안북도	경기도	수원	34	황해도	해주	23
평안남도	충청북도	충주	17	평안남도	평양	23
황해도	충청남도	공주	37	평안북도	의주	21
경기도	전라북도	전주	26	강원도	춘천	26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	32	함경남도	함흥	14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구	41	함경북도	경성	9
전라남도	경상남도	진주	29			

13도제는 189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대한 제국 및 일제 강점기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어 현재 지방 행정 조직 체제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3도제에서는 지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8개의 부와 1개의 목을 따로 두어, 모두 13도·8부·1목·332 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도제 개편은 옛날 도제로 복귀하고 부와 목을 다시 두었다는 점에서 23부제와 차이가 있으나, 8도를 13도로 세분해 행정의 능률을 꾀하고 군 단일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은 갑오개혁기의 개혁 방향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 관원의 임용 절차와 보수 규정, 면리(面里)의 운영 등에 있어서 23부제에 비해 달라진 것이 많았으나, 관찰사를 내부대신의 감독 아래 두게 하고 지방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기본 정신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광무개혁기의 13도제는 옛날의 도제에 토대를 두되 그 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봉건적 성격을 탈피하고, 근대적 성격의 중앙 집권적 지방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다시 도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 행정 중심 도시, 즉 오늘날의 도청 소재지는 수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여러 지역은 1등 군부터 4등군으로 편성되어 4부 34군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1등군으로는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 인천부, 2등군으로는 수원군, 3등군으로 여주군, 양주군, 장단군, 통진군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4등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등군 지역은 파주군, 이천군, 부평군, 남양군, 풍덕군, 포천군, 죽산군, 양근군, 안산군, 삁녕군, 안성군, 고양군, 김포군, 영평군, 마전군, 교하군, 가평군, 용인군, 음죽군, 진위군, 양천군, 시흥군, 지평군, 적성군, 과천군, 연천군, 양지군, 양성군, 교동군이었습니다.

**이야기
셋**

서울에 빼앗긴 경기도 땅

경성부는 일제 강점기 때 존재했던 행정 구역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해당합니다. 조선과 대한 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는 1910년 일제의 국권 피탈 이후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행정 중심지로서 경성부로 불리게 되었고, 경기도에 편입되어 도청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1919년 당시 경성의 인구는 48만 8천명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인들 이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자 일본인 거주지가 새로 조성되었습니다. 남산 일대와 남대문 밖 서울역 부근, 그리고 용산 방면에 일본인 주거지가 생겨 일본식 목조 가옥이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을지로와 명동, 충무로에 일본인 상가도 형성되었습니다.

경성부는 종로·남대문로·태평로를 중심으로 변화한 도심지가 형성되었고, 청량리 등의 전차 종점과 전차 노선 부근도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은 근교 농촌이었습니다. 그 밖에 아현동 일대와 송인동·신설동 등에는 조선인 주택지가 조성되었습니다.

1913년 일제는 시가지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한양 도성 성벽을 헐어 도로를 만들고 시가지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때 이후 서울은 조선의 전통적인 성곽 도시의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와 이로 인한 인구 집중 현상으로 점차 경성 부 주변 군 중 일부 지역이 경성부로 편입되었습니다. 1936년 고양군의 일부 지역이 경성부로 편입되었으며, 영등포 읍을 비롯한 시흥군과 김포군 일부가 경성부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성부의 면적은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보다 4배로 확장된 133.94km²가 되었고, 새로 편입된 지역에 각각 용산·영등포·동부 출장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6월 10일, 인구 증가에 따라 구가 설치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잠시 경성으로 불렸으나, 1946년 9월 28일 미군정에 의해 경기도에서 분리해 서울특별자유시가 되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출범 다음 해인 1949년 8월 15일에 서울특별시가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내내 일제의 정책에 따라 서울의 행정 구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의 행정 구역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 행정 구역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어허, 무식한 소리… 그때는 아예 서울이 없었어. 경성부도 경기에 속한 행정 구역이었거든.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였다니까.

ㅎㅎㅎ

생각
나누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적어 보세요.

8도 체제	23부 체제	13도 체제	현재
경기도 안산군	인천부	경기도 시흥군	경기도 안산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색깔별로 구분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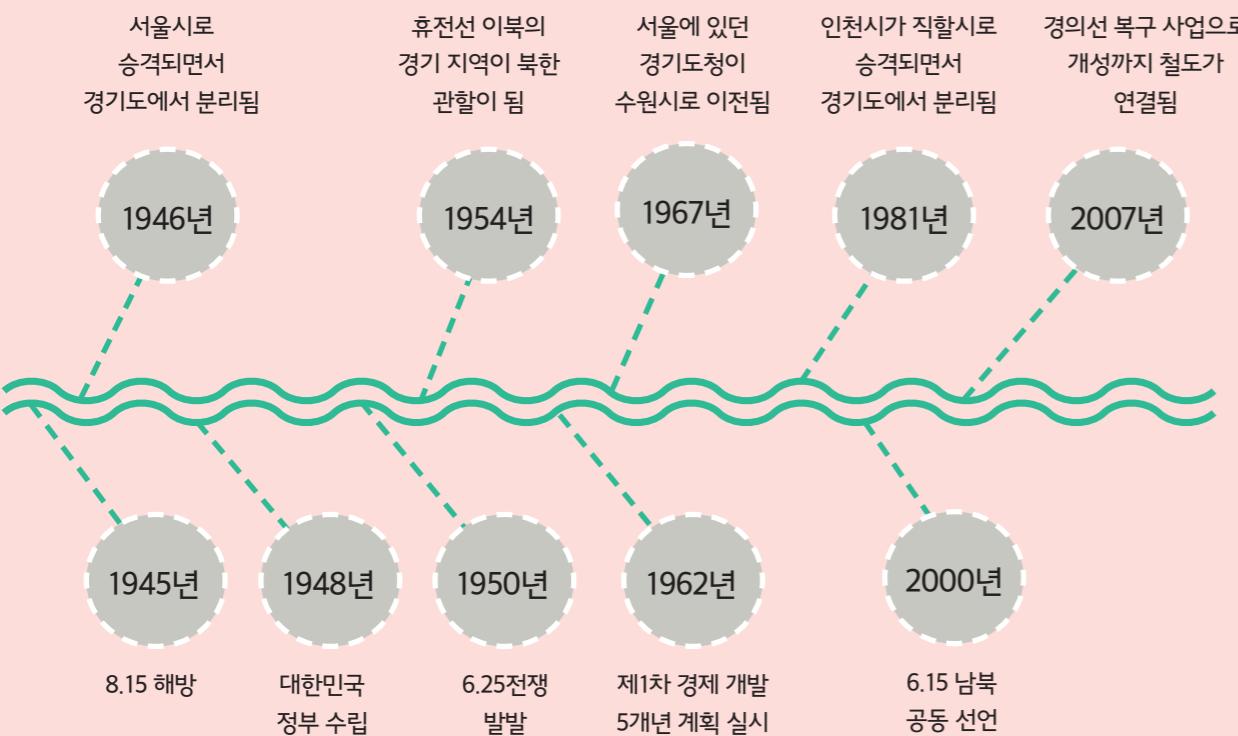
경기도의 형성_4

현대 경기도의 변화

4학년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경기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승격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고, 인천시도 분리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휴전선 북쪽의 개성시를 비롯한 지역들도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경기도의 발전은 계속 이어져서 현재 15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 이후 경기도의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살기 좋게 변할 경기도의 미래를 꿈꾸어 볼까요?

이야기
하나

해방 이후 경기도의 변화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치욕스런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감격스런 광복을 맞이하였어요. 광복은 35년간 전개된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였지만, 그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에게 패배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부푼 꿈을 꾸었지요. 하지만 전쟁에 승리한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이 우리 영토를 38도선을 기점으로 나누어 점령하면서 우리 민족의 꿈은 점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경기도도 북부 지역이 38도선으로 인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할은 결국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1 여운형(1886~1947) 경기도 양평 출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일제 말에는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어 광복에 대비하였다. 광복 이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독립 국가 건설과 좌우 합작 운동에 힘썼다.



2 안재홍(1891~1965) 경기도 평택 출신.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고대사를 연구하여 일제 식민 사관 극복에 힘썼다. 광복 이후 여운형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위원장장을 지냈고, 좌우 합작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외세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출신인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에는 역시 경기도 평택 출신인 안재홍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어요. 하지만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좌우익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결국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의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행정 구역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일제 강점기 동안 경기도에 속해 있던 경성부가 1946년 서울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팔 앙금이 들어간 찐빵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이 분리되면서 가운데가 텅 빈 도넛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서울은 경기도의 몇몇 지역을 끌어들이면서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워 대한민국의 초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남북 분단에 이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3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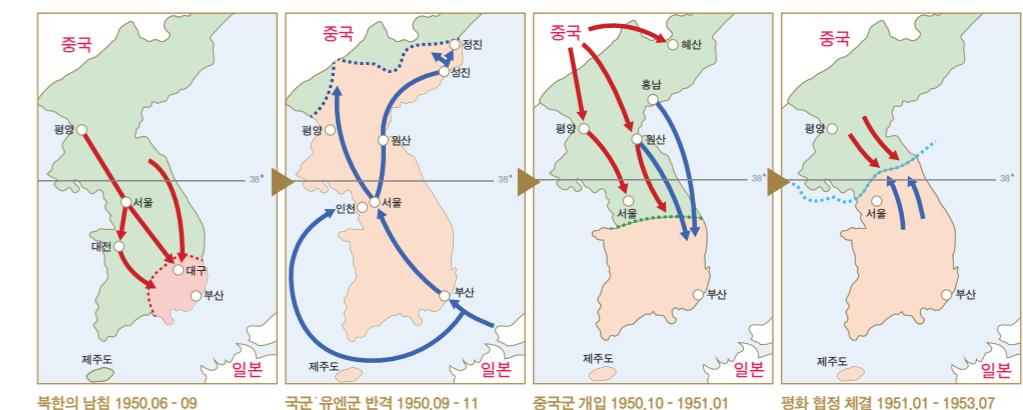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경기도 북부 지역인 38도선 부근에서는 남북 간의 충돌로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38도선에 접해 있는 지역이 많고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어 전쟁 초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도우러 온 유엔군 소속의 미군이 7월 5일 북한군과 처음 전투를 벌인 곳도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던 국군과 유엔군에게 대반격의 계기가 된 작전은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였던 인천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지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넘어 북한 지역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다시 38도선 아래까지 후퇴하게 되었지요. 이후 1953년 7월 휴전 회담이 성립될 때까지 2년여 동안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은 격렬한 전투로 인해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산업 시설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2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수많은 집과 건물이 파괴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경공업 지역이었던 경인 공업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내의 산업 기반이 파괴되면서 지역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 이후 연천군과 포천군 등 경기도 북부 지역 일부는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지만,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개성시, 개풍군 등은 북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1967년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방 이후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지만 경기도청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서 경기도청을 경기도 관할 지역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도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인천시와 수원시였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1963년 경기도청사의 수원 유치가 결정 되었고, 1967년에 마침내 수원 경기도청사로 최종 이전되었습니다.



이야기 둘

지방 자치 제도의 실시와 경기도

지방 자치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점 혹은 필요한 부분을 지역 주민 혹은 지역 주민의 대표가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시장과 군수 등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 자치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시·도 의원과 시·읍·면 의원을 선출하여 지방 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방 의원 총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에서 378명의 시의원이, 72개 읍에서 1,115명의 읍 의원이, 1,308개 면에서 1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1956년 처음 문을 열고 경기도민의 뜻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천의 장이 되었습니다.

2대 의회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지만 1961년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 자치 제도는 중단되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었고 대한민국을 군대처럼 한 가지 생각과 색깔로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치를 강화하는 유신 헌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국민들의 지방 자치 요구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무시하였습니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 독재는 무너졌지만 이어 들어선 전두환 군사 독재 정부 역시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를 보류한다.’라는 평계를 들어 지방 자치 제도 실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하게 된 것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6월 민주 항쟁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의지가 터져 나오면서 민주적인 지방 행정 제도로서 지방 자치 제도가 다시 시행된 것입니다. 1991년 3월에는 시·군·구·자치구 의원 선거가, 6월에는 시·도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 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죠. 이후 군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끝나고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하는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1995년 5월에는 지방 자치 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 의회 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선 자치 시대가 다시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의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수도인 서울과 맞먹는 거대 지방 자치 단체로서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에 기여하여 경기도 자치단체장과 의회 출신의 중앙 관료 및 국회 의원들을 배출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실질적인 민주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961년 272만 명이었던 경기도 인구는 1970년 329만 명, 1980

년 493만 명, 1990년에는 615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

가하였습니다. 특히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의 기간 동안, 약 500만 명이 증가

하면서 인구 천만이 넘는 지방 정부

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1980년대 말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을 신도시로 개발하여 대규모 주

택 단지를 만든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

니다. 신도시 개발은 행정 구역에도 변화를

가져와 2018년 기준으로 29개 시와 2개 군의 행정 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경

기도 인구(행정안전부 2018년 2월 통계)는 1,290여 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약 5,160여 만 명)의 25%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시도 순위를 추이



▶ 경기도는 인천시, 세종시(2014년 기준 24%)와 함께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대표적 지역입니다.

이야기
셋

통일을 준비하는 경기도

이야기 하나에서 이야기했듯이 남북 분단에 이은 6.25 전쟁으로 경기도는 개성시와 개풍군이 휴전선에 가로막혀 북한에 편입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완전한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으므로 언제든 다시 전쟁할 수 있다는 ‘휴전’이라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남과 북의 협력이 경제·문화 분야로 점차 확장되면 경기도 북부 지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올 것이고, 이때 북한 주민은 경기도로 가장 많이 이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가 북한과 맞닿아 있고 일자리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지요.

남북 간의 오랜 대결이 끝나고 평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되어 통일을 향해 가게 된다면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는 남북 간 경제 교류의 거점이자 서로 다른 문화와 체제를 극복하는 사회적, 문화적 융합 지대로서 남북 간의 서로 다른 체제가 부딪히는 충격을 줄여주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휴전선에 접해 있는 경기도 북부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통일 경제 특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DMZ(비무장지대) 세계 평화 도시 조성, 남북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통일 경제 특구 실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인력 등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남북 경제 협력 단지와 남북 교류 거점 도시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JDS(장항동·대화동·송포동) 지구와 연계한 ‘평화 통일 경제 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 기술 연구 단지를 건설하는 ‘통일 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도 추진해 남북 경제 협력과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십장 Miracle 연천’ 슬로건을 내건 연천군은 ‘남북 교류 협력 지구’ 개발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는 경기도 북부의 비무장지대 사진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조성, 대북 지원 양묘 사업, 통일 평생 교육 특구 지정, 남북 유소년 축구 대회 개최 등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포시는 DMZ(비무장 지대)가 없는 김포의 한강 하구와 서해를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통일을 향한 물꼬로 활용한 ‘평화 문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 자산을 활용해 남북 교류와 통일의 전진 기지로 구축하고 대북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 단지’ 조성 계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들의 계획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세우기 위해 ‘통일 경제 특구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이 통일 경제 특구로 지정된다면 경기도는 파주시와 고양시 등 경의선을 축으로 하는 지역에는 북구 서해안권의 경제 기반을 활용해 경제·산업 기능을 육성하고, 경원선을 축으로 하는 연천·동두천·양주 등은 자연 여건과 내륙 이동 수단을 활용해 관광·물류·에너지 성장을 유도, 이를 한반도를 넘어 중국·러시아 등 유라시아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북부 지역의 330만m²가 통일 경제 특구로 조성된다면 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생산을 유발하고 7만 명이 새로 고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통일 경제 특구는 경제 분야에서의 발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남북 교류 사업, 통일 기반 사업, 통일 교육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학생들이 개성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머지않아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1. 해방 이후 경기도의 행정 구역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을 시대별로 적어 봅시다.

해방 직후

6.25 전쟁 전후

1960년대

2.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의 인구가 크게 증가한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3. '이야기 둘'을 잘 읽고 다음 문제의 답을 적어 봅시다.

3-1. 1961년 지방 자치 제도 중단의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3-2. 노태우 정부 시기에 지방 자치 제도가 다시 시행된 이유를 적어 봅시다.

4. 경기도가 추진하는 '통일 경제 특구'가 실현된다면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을지 적어 봅시다.

1. 다음 기사를 읽고 비무장 지대(DMZ)를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둠별로 만들어 봅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남북 간에 전쟁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 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6월과 7월 두 차례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이 열렸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을 보았다.”며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 지대(DMZ)를 명실상부한 평화 지대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JSA)의 비무장화, 비무장 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등 구체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2018.9.13.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

DMZ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자국의 영토임에도 국제법상 병력 및 군사 시설을 주둔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DMZ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종전(終戰) 아닌 정전(停戰)으로 마무리되고 육상의 군사 분계선인 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양국의 군대를 후퇴시키기로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임진강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정동리에서 동해안인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총 248km, 1,292개 표지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제도인 DMZ는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 공간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격리 배치, 감시 기구 설치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지만, 현재 한반도 DMZ와 그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1. 비무장 지대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2-2. 비무장 지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漢水以南稱為左道屬邑二十二以北稱為右道屬邑十五合為三十七宮

西抵大海南抵忠清道西止抵黃海道及海

戶內男二十八萬二千七百八十口女二十九萬四千一百口

兩千九百十二結八員八束

六百七十結六百七十七束內雜頓除

六千三百六十八結十九員七束

六騎三等馬四百四十九疋

上等九十一

中等一百八十一

下等一百六十七疋

戰船六隻

鉄原

金化

漣川

長湍

麻田

豐德

喬桐

交河

坡州

積城

高陽

楊州

通津

金浦

京都

富平

陽川

京畿

仁川

安山

裕川

廣州

龍仁

水原

南陽

振感

陽城

利川

驪州

原州

堤川

陰竹

竹山

安城

牙山

山邊

山

2단원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

5차시

경기도의 대동 항쟁

6차시

경기도의 양난 극복

7차시

경기도의 국권 수호 운동

8차시

경기도의 독립 운동

五路所屬 慶安所屬 桃源所屬 良才所屬 平五所屬 慶安所屬 桃源所屬 仇和白旗 玉溪 韓東 湘水

慶安所屬 德豐楊花 錦華 河川 春川 曺谷

桃源所屬 仇和白旗 玉溪 韓東 湘水

三十里為一息 三十里為一息

慶安所屬 德豐楊花 錦華 河川 春川 曹谷

桃源所屬 仇和白旗 玉溪 韓東 湘水

良才所屬 仇和白旗 玉溪 韓東 湘水

平五所屬 慶陽安奇翠文奉安娛賓雙樹田谷白冬仇谷甘泉

慶安所屬 德豐楊花 錦華 河川 春川 曹谷

桃源所屬 仇和白旗 玉溪 韓東 湘水

三十里為一息 三十里為一息

慶安所屬 德豐楊花 錦華 河川 春川 曹谷

桃源所屬 仇和白旗 玉溪 韓東 湘水

三十里為一息 三十里為一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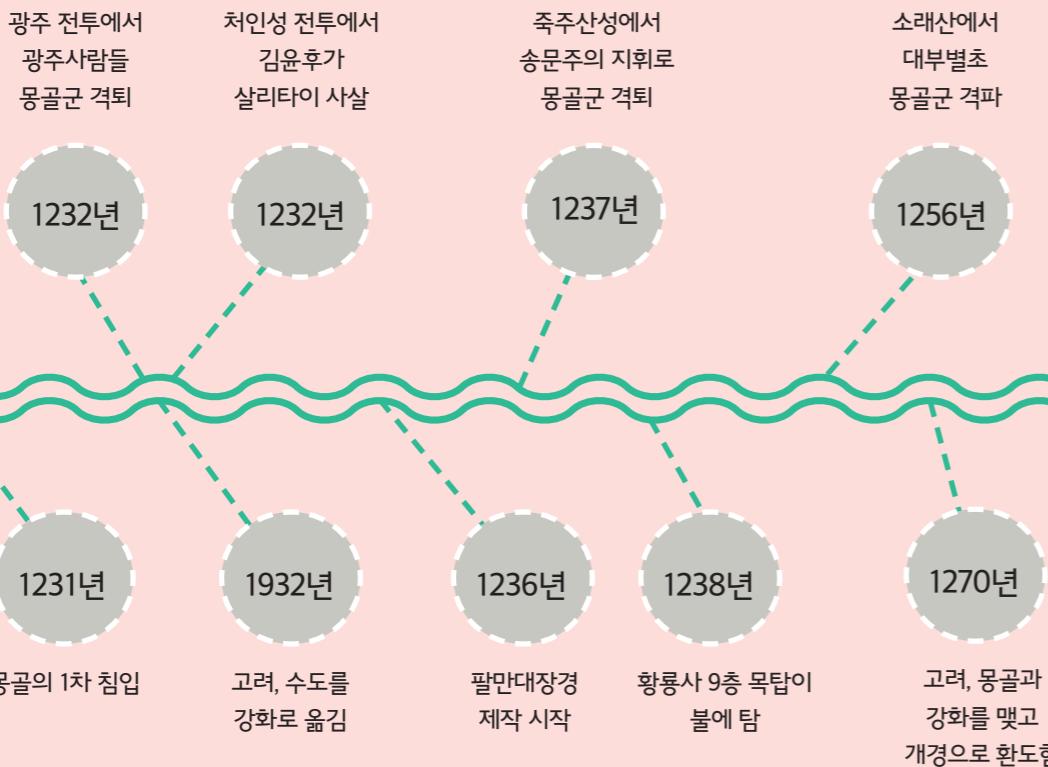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_1

5차시

경기도의 대몽 항쟁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세계 제국으로 성장한 몽골이 고려를 처음 침략한 것은 1231년입니다. 고려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돌아가던 몽골 사신 저고여가 강도를 만나 죽음을 당한 것을 핑계로 쳐들어 왔어요. 고려는 몽골과 화해를 하였지만 몽골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고려에 다루가치를 남겨 두어 정치에 간섭하고 백성을 괴롭혔어요. 1232년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우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270년 몽골에 항복하여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옮길 때까지 수십 년간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고려의 지배층은 바다 건너 강화도에서 편히 지냈고, 몽골과 용감하게 싸운 것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골과 맞서 용감히 싸운 경기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야기 하나

처인성 전투

1 고려 시대 부곡은 특수 행정 구역으로 다른 일반 군현의 마을에 비해 차별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처인성은 현재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의 구릉에 위치한 흙으로 쌓은 작은 규모의 토성입니다. 처인성은 처인부곡¹의 중심으로 고려 시대 몽골의 2차 침략 당시 광주성 전투 직후 몽골군이 남쪽 지방으로 쳐내려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232년(고종 19) 12월 몽골군이 육박해 오자 처인부곡의 백성들은 처인성에 들어가 싸울 준비를 하였고, 살리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과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백현원 승려 김윤후의 활약으로 적장 살리타이가 사살됨으로써 몽골군은 큰 타격을 입고 마침내 물러났습니다. 이 전투는 막강한 몽골 침략군의 사령관을 사살한, 고려의 대몽 항쟁과정에서 거둔 승리 중 가장 큰 승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군을 물리친 처인성. 성 입구에 처인성 승첩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당시 처인성은 흙을 다져 쌓은 작은 성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군대가 파견되어 지킬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다만 승려 출신인 김윤후의 지휘 아래 처인부곡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몽골군에 맞선 것입니다. 이전 몽골과의 전투가 중앙에서 파견된 군대 혹은 지방을 지키던 정규군에 의해 진행된 것에 비해 처인성 전투는 경기도 백성들이 스스로 맞서 싸운 전투였어요.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한 사람들은 거의 처인부곡 사람들이라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 부곡은 향·소와 함께 일반 마을보다 차별을 받았던 특수 행정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시대 향·소·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더 많이 부담해야 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즉, 고려 정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처인부곡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몽골군의 말발굽 아래 납작 엎드려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혹은 중앙 정부로부터 기적처럼 자신들을 구원할 군대가 올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김윤후의 지휘 아래 힘을 합쳐 서로를 믿고 싸웠습니다. 이렇듯 처인성 전투의 승리는 중앙 정부군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순수한 경기도 백성들의 자발적인 항전이었습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최근 가장 주목이 되는 점은 ‘누가 몽골군의 대장인 살리타이를 사살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종래에는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김윤후가 살리타이를 죽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 또 다른 기록인 『신증동국여

지승람』이나 중국 『원사』의 내용에는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는 도중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에도 김윤후의 공을 칭찬하며 상장군으로 임명하려 하자 김윤후가 “싸울 때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헛되이 큰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사양해, 할 수 없이 섭남장으로

낮추어 관직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김윤후는 살리타이를 쏘아 죽일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살리타이가 김윤후의 지휘 아래 용감히 싸우던 처인부곡에 사는 이를 모를 백성이 쏜 화살에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처인성 전투 이후 고려 정부는 처인부곡을 그동안 차별받던 부곡

이라는 이름을 떼고 일반 행정 구역인 처인현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정부도 처인부곡 백성들의 공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인성 전투로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이 결국 12월 군대를 돌려 돌아가면서 몽골의 2차 침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김윤후는 처인성 전투 이후 몽골의 5차 침략 때인 1253년(고종 40) 충주산성 전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때는 장군인 방호별감으로 파견되어 충주산성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때에도 충주의 힘끼나 쓰는 귀족과 장군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에서 충주 백성들을 노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싸우도록 만들어 몽골군의 공격을 70여 일간이나 막아냄으로써 적이 남쪽으로 침략하는 것을 좌절시켰습니다.

당시 김윤후는 “우리가 힘을 합쳐 적을 막아낸다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관직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노비 문서를 모두 불사르고, 또 소와 말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힘을 얻은 충주산성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워 몽골군을 물리쳤지요. 고려 정부도 약속을 지켜 김윤후는 물론 농민부터 관청의 노비까지 차등 있게 벼슬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둘**

죽주산성 전투

살리타이가 전사함으로써 고려에 대한 2차 침략이 실패로 돌아간 이듬해 1233년 5월, 몽골은 금의 수도 변경을 함락하였습니다. 이어 1234년 금을 멸망시킨 몽골은 당고를 앞장세워 고려에 대한 재침략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몽골의 제3차 침입입니다.

1235년 몽골이 다시 침략하자 강화도에 있는 고려 정부는 5군을 편성하여 강화의 연안 방어에 주력하게 하고, 아울러 가까운 광주와 남경의 백성을 강화도에 합하게 함으로써 임시 수도인 강화도의 방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이 있는 수도만 꽁꽁 지킬 뿐이고 육지 지역을 침입하는 몽골과의 정면 대결을 위해 중앙군을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고종 22년부터 26년에 이르기까지 5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몽골의 3차 침입에 맞서 싸운 것도, 고통받은 것도 육지의 일반 백성들 뜻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사람들은 지평과 죽산 전투로 대표되는 용감한 항전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죽주산성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를 침략하였다가 잠시 후퇴했던 몽골군은 1236년(고종 23) 6월 다시 압록강을 건너 대거 고려를 침략하였습니다. 7~8월 몽골군은 저항하는 북계의 여러 성을 공략하였고, 8월 말에는 경기와 충청 지방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이어 9월에는 죽주(안성)·온수(온양) 등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몽골군 침략 경로는 모두 서북 지역으로부터 남하하여 경상도 방면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1236년 벌어진 경기도 안성의 죽주산성 전투입니다.

죽주산성 전투는 15일간 진행되었는데, 몽골군의 경우 먼저 고려에 항복을 권유한 다음 항복을 하지 않자, 사방을 포위해서 포를 쏘아 성을 부수었습니다. 이에 고려 병사들은 다시 포로 응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몽골군이 다시 짚에 기름을 뿌려 성을 불사르는 화공(火攻)작전을 감행하였으나, 고려군이 그 틈을 타서 성문을 열고 몽골군을 급습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침략에 맞선 고려는 몽골의 공격이 시작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전투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주산성 전투에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몽골군의 공격 방법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맞게 미리 체계적으로 작전을 짜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투 방식을 계획하고 지휘한 탁월한



하늘에서 내려다 본 죽주산성(경인일보 제공). 충청북도 청주와 충주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에 쌓은 성입니다.

장수는 방호별감인 송문주였습니다. 그는 이미 귀주성 전투 등에서 몽골군과 싸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몽골군이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의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고려군에게 “오늘은 몽골군이 반드시 이러한 장비를 이용한 공격을 펼칠 것이니 우리는 이에 대응해 저러저러한 장비를 준비해서 싸워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적의 공격을 미리 예측하여 방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몽골의 제3차 침략은 수년 전 고려로부터 당한 패배를 보복하고, 아울러 고려를 완전히 제압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군사적 공세를 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기도 백성을 비롯한 고려군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당분간 양국은 외교적 통로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시적 합의를 보았으나 이후에도 몽골군은 고려를 계속 침입하였고, 전쟁은 수십 년이 넘도록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야기
셋

소래산 전투

몽골의 제3차 침략 이후 외교적인 방법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풀어보고자 했던 노력이 또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몽골은 1247년(고종 34) 7월 고려에 대한 제4차 침략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침략은 몽골 원수인 아모간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몽골 편이 된 고려인 홍복원을 데리고, 먼저 청천강 상류를 공략하고 남진하여 7월에는 개경 및 강화 연안인 염주까지 육박하여 주둔함으로써 강화도에 있는 고려 정부를 위협하였습니다.

1254년(고종 41) 정월 고려로부터 철수한 몽골군은 차라대를 지휘관으로 군사를 개편하고, 같은 해 7월부터 1260년(고종 46)까지 제6차 침략을 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려가 입은 피해는 매우 커습니다. 더욱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부에서의 정치권력이 변동되거나 정부의 전쟁 지도 방식에 대한 농민들의 태도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사』에는 고종 41년 한 해 동안에만 몽골군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가 206,800여 명, 목숨을 잃은 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몽골군이 지나는 곳마다 잿더미가 되었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에 맞서 항전을 벌였다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잊지 않고 몽골에 맞서 싸운 경기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1256년(고종 43) 인천 소래산 아래에서 몽골 군사 1백여 명을 격파한 대부도 별초입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소래산 전투에 관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경진(庚辰)에 대부도(大府島; 남양) 별초(別妙)가 밤에 인주(仁州: 인천) 근처의 소래산(蘇來山) 아래에 나가 몽골 병사 1백여 명을 격파하여 도망가게 했다.

—『고려사』 권 24, 세가 24 고종 43년 4월

소래산은 지금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인천의 주산입니다. 이 산의 아래에서 대부도 별초가 몽골군을 패퇴시켰다는 것은 비록 그 숫자로 보아 몽골 주력 부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려 별초군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

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흥시 소래산.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마애불이 유명합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는 무참한 파괴와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항상 몽골군의 경유지였고, 그들의 주요 상대인 최씨 무신 정권을 비롯한 지배층이 강화도에 있어서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몽골 침략 시기 왕족과 최씨 무신 정권의 실력자 등 최고 지배 계층들은 강화도로 피신하였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던 나머지 지배층들도 산성이나 섬으로 피신하여 자기 살길만 찾았습니다. 결국 양인 농민 및 그 이하의 최하층 백성들만 병역에 동원되어 몽골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경기도에서 벌어진 몽골군과의 전투 역시 대부분 이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 본문 내용을 잘 읽고 김윤후와 송문주를 비교해 봅시다.

구분	김윤후	송문주
출신 신분		
몽골군과 맞서 싸운 곳		
전투에서 구체적인 업적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몽골 침략 시기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최우와 지배총은 몽골의 침입과 백성들의 불만을 피해 강화 도로 도망갔다. 본토에 남아 있던 지배총들도 산성이나 바다의 섬으로 피신하였다. 결국 양인 농민 및 그 이하의 최하층 백성들만 병역에 동원되어 몽골군에 대항하였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몽골군과의 전쟁 역시 대부분 이 이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경기도에서의 항쟁은 주로 몽골 침략 전반기(제1~3차)에 치러졌고, 후반기에는 이렇다 할 항쟁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2-1. 몽골군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2-2. 경기도에서 몽골 침략 후반기에 항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몽골의 침략과 항쟁에 대한 OX 퀴즈를 풀이하세요.

	문제	맞아?
1	몽골은 몽골사진 저고여가 강도를 만나 죽음을 당한 것을 핑계로 침략하였다.	O
2	최우는 수도를 제주도로 옮겼다.	X
3	몽골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주로 백성들이었다.	O
4	살리타이를 사살한 김윤후는 왕족이었다.	X
5	처인부곡은 고려시대 일반 군현에 비해 차별받았다.	O
6	충주산성 전투에서 노비들은 모두 도망갔다.	X
7	죽주산성 전투에서 몽골군에 맞서 지휘한 사람은 송문주 장군이다.	O
8	송문주 장군은 원래 백현원의 승려였다.	X
9	2차 침입 당시 몽골군의 지휘자는 살리타이였다.	O
10	처인성은 서울시에 있다.	X
11	대부도 별초가 몽골군을 격퇴한 곳은 소래산이었다.	O
12	소래산은 서울시에 있다.	X
13	최씨 무신정권을 비롯한 지배총은 몽골 침략 때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O
14	최씨 무신정권의 실력자였던 최우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였다.	X
15	몽골은 고려 정부에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	O
16	몽골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싸운 부대는 별기군이다.	X
17	몽골 제국을 세운 사람은 칭기즈칸이다.	O
18	처인성 전투 이후 고려 정부는 처인부곡을 처인현으로 승격시켰다.	O
19	김윤후는 방호별감이 되어 충주산성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O
20	김윤후는 충주산성에서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웠다.	O

2. 1번 문제에서 O에 해당하는 번호만 찾아 색칠 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3	12	12	12	12	3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3	12	12	12	12	3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3	12	3	8	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3	12	3	8	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3	3	3	3	3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20	20	20	20	12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20	20	20	20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6	14	14	14	14</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_2

경기도의 양난 극복

6차시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세마대 전투 행주 대첩 병자호란

1592년

1593년

1636년

1592년

1597년

1627년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괄의 난

소현 세자가 돌아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임진왜란 후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강성해지는 등 국제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때 명이 후금을 공격할 군대를 조선에 요청하자,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조성은 강홍립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후금의 보복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광해군의 지시에 따라 후금에 항복하였습니다. 강홍립은 후금에 갇혀 있으면서도 후금에 대한 정보를 광해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1627년 강홍립이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는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는 후금과 조선이 전쟁을 멈추고 형제 관계의 조약을 맺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계속 친명 정책을 펼쳤고, 청의 침략으로 더 큰 전란인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이 겪은 두 차례의 전쟁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기도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살펴볼까요?



세마대 전투와 행주 대첩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은 전쟁 초기 일본군의 승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함락되었고, 이어서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패하면서 경상도가 일본군에 넘어갔습니다.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충주 탄금대에서 크게 패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지 겨우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되었습니다. 계속된 관군의 패배로 나라 전체는 큰 어려움에 처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군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포함한 수군의 활약으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으로 조선은 전라, 충청, 황해 등 주요 곡창지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군과 의병들이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곡창 지대가 온전히 남아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북쪽에서는 빼앗겼던 평양성을 되찾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으며, 명의 원군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임진왜란의 상황을 크게 바꾸게 되는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투가 세마대 전투와 행주 대첩입니다.

명 군대가 남하하자 권율 장군은 한양을 되찾기 위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평지를 피하고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독산성에 들어가 성곽을 보수하고 전투에 대비하였습니다. 독산성에 포진

한 부대에 수원부사 조경과 수원판관 홍계남이 이끈 수원의 군사 1,000여 명도 합류하였습니다. 한양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의 총대장 우키다는 이 소식을 들고 즉시 2만 명의 왜군을 독산성으로 보냈습니다. 한양으로 들어오는 보급이 위협을 받아 한양에 주둔한 군대는 물론 평양과 함경도에 진출한 군대에게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적인 열세임에도 독산성의 견고한 성곽을 바탕으로 권율 장군은 5일간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조총 부대를 주력으로 하는 왜군에 맞서 성 밖에서 싸우는 것 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면서 지형을 이용한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을

피우고 나발을 불어 적을 놀라게 하는 소란 작전을 펼치고 독산성 밖에 있는 의병과 연락하여 왜군의 외곽에서 밤낮으로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며 적진 주변을 돌아다니는 작전을 펼쳐 왜군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왜군은 병사들만 희생시킨 채 다시 한 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전투는 세마대 전투라고 불리는데, 세마대 전투 승리로 인해 조선군이 왜군을 상대하는 방법이 전면전이 아닌 지형을 이용한 기습 작전과 성을 중심으로 지키면서 싸우는 방식 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여송이 이끄는 명의 원군이 도착함에 따라 조선군과 승군 등이 충동원되어 1593년 1월 평양성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부대가 한양으로 철수하자 함경도에 주둔하던 가토 부대도 한양으로 철수하였습니다. 이때 권율은 한양을 되찾기 위해 다시 전진하여 행주산성으로 군사를 옮겼습니다. 행주산성에서 화포를 설치하고, 목책을 세우는 등 왜군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행주산성의 권율 부대가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 왜군은 1593년 2월 어느 날 새벽, 우키다의 지휘 아래 3만여 명의 왜군이 7개 부대로 나누어 행주산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공격은 매우 거세었으며, 1차, 2차, 3차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3차 공격은 1차 성벽과 2차 성벽 까지 무너지게 하였고, 서로 뒤엉켜 백병전을 할 만큼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화약 무기를 비롯한 조선군의 철저한 준비에 승병과 부녀자 등 백성들의 단합된 노력이 더해져 왜군을 격퇴시켰습니다. 이 전투가 행주 대첩입니다.

결국 왜군은 한양에서 물러나 경상도 지역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이 두 전투는 관군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독산성에서는 매년 ‘독산성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며, 행주산성에서도 매년 ‘고양행주문화제’를 열어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벌입니다.



화약을 이용해 수백 발의 화살을 쏘는 신기전과 한꺼번에 많은 쇠구슬을 발사하는 화차는 왜군이 가진 조총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격진천뢰는 일종의 시한폭탄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의 화약이 터져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어요.

이야기
둘

경기도의 의병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관군의 잇단 패배로 국토가 왜군에 의해 짓밟히고 많은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를 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병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병장은 주로 전직 관리 등 마을에서 명망이 높은 양반들이 맡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이 커던 의병장으로는 곽재우, 고경명, 조현, 김천일, 김면, 정인홍, 정문부, 이정암, 우성전, 권응수, 변사정, 양산숙, 최경희, 김덕령, 유팽로, 유종개, 이대기, 제말, 홍계남, 손인갑, 조종도, 곽준, 정세아, 이봉, 임계영, 고종후, 박춘무, 김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으로 우성전과 홍계남을 꼽을 수 있어요.

우성전은 조선 중기 명종과 선조 시기에 활동했던 문신이었습니다. 그는 1568년 문과에 급제한 뒤 수원현감을 비롯해 강화부사, 연안부사 등을 역임해 명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관직 생활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관직을 잃고 수원으로 물러나 학문을 연마하고 있었던 우성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기도에서 의병을 모집해 '추의군(秋義軍)'이라 하고, 소금과 식량을 조달해 난민을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도에 들어가서 김천일과 합세해 많은 공을 세웠고, 행주 대첩 때 의병을 이끌고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계속되었는데 용산의 왜군을 쳐 양곡을 확보해 관군과 의병의 식량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퇴각하는 왜군을 경상도 의령까지 쫓아가는 등 큰 공을 세웠으나 과로로 병을 얻어 경기도 부평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우성전과 함께 공부했던 서애 유성룡은 그의 생애에 대해 "안목이 당세에 가장 높아 원망을 많이 샀고, 길이 혐난하고 곤궁했으나 끝까지 변치 않고 죽었다."라고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홍계남은 어릴 때부터 용감하였으며, 말달리기와 활쏘기를 잘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전에는 일본에 파견되는 통신사의 군관으로 선발되어 황윤길·김성일 일행을 수행하고 돌아왔으며, 관직으로는 경기도 조방장, 충청·경상도의 조방장, 수원판관·영천군수 등을 지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 안성에서 부친 홍자수와 집안의 4명의 형과 같이 의병을 모아 엽돈령에 머물고 있는 왜적 7명의 목을 베어 적을 퇴각시켰습니다. 그는 목총 땅에 성루를 쌓고 싸울 준비를 갖추는 한편, 죽산·양지·용인 등지에 진을 치고 있던 왜적을 기습하여 적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홍계남이 다른 곳에서 싸우는 동안 부친이 전사하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의병진의 선두에 서서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적의 상황을 살피고 도처에서 유격전도 펼쳤습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전라·경상도 지역으로 진출하여 이빈·선거이·송대빈 등과 함께 운봉·남원·진주·구례·경주 등지로 다니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고 언백·홍계남이 없으면 경성(서울)의 인심이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높이 평가한 당대의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투를 치른 끝에 병이 들어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성전과 홍계남은 임진왜란의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구한 용감한 영웅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 이름이 전해진 몇몇 장군만의 공으로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싸운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의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군에 비해 훨씬 좋지 않은 무기 를 가지고서도 용감하게 싸워 이 땅을 왜군으로부터 지켜낸 숨은 영웅들입니다.



홍계남장군 고루비

이야기 셋

남한산성의 항전

임진왜란은 조선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의 상황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을 도운 명은 점점 힘을 약했고, 이를 틈타 만주족은 세력이 강해져 후금을 세웠습니다. 조선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과 함께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을 돕지 않는 것은 의리 없는 짓이라고 생각한 양반들에 의해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되자 후금을 배척하고 명과 친하게 지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에 후금은 두 차례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이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정묘호란은 1627년에 일어났습니다. 3만여 명의 후금 군대가 들이닥쳐 평양에 이어 황해도 황주까지 차지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침략에 당황한 조선은 후금과 앞으로

형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조약을 맺은 뒤 후금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후금은 1636년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뒤 조선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명과 사대 관계를 맺었던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청은 같은 해 12월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이를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청의 침략을 예상한 조선의 전략은 청 기마병을 대비해 강화도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수군 작전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 또한 조선의 전략을 알고 있었기에 속도전을 선택하였습니다. 애초부터

조선 임금만을 공략하기 위한 전술을 택한 것입니다. 압록강에서 한양 사이의 방어성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기마병의 속도를 이용해서 바로 한양으로 달렸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청군의 진격에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 인조는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장기 항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명과 우리는 둘도 없는
의리의 관계이니
청을 황제의 나라로
섬길 수 없다.

우리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임금과 신하들이 의주까지 피란한 쓰라린 경험을 한 이후 조선은 한양 주변의 성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역시 후금이 침략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도성을 방어하고 유사시 왕이 피란할 수 있는 장소로 그 중요성이 커져서 1624년(인조 2)부터 1626년(인조 4) 사이에 대대적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남한산성은 성 둘레가 6,297보가 되었고, 여장 1,897개, 옹성 3개, 대문 4개, 암문 16개, 그리고 초소 125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물 80개, 샘 45개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왕이 거처할 행궁도 조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설이 갖추어졌기에 13만 대군의 청군에 맞서 장기간 항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청군은 공성무기를 사용하여 맹렬하게 공격하였지만 조선군은 용감하게 막아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계속 실패하자 청군은 성을 포위하고 물자 보급을 끊어 남한산성을 고립시켰습니다.

인조는 지원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청군을 물리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광교산 전투와 김화 전투 등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청군을 상대로 격파당하였습니다. 강원도감사 조정호가 7,000여 명을 이끌고 검단산에서 싸웠으나 대패하였으며, 충청도감사 정세구가 8,000여 명을 이끌고 험천에서 싸웠으나 패배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쌍령 전투였습니다. 경상좌병사 허완과 경상우병사 민영이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오다가 쌍령에서 청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병자호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이 전투에서 조선군이 크게 패함으로써 남한산성을 구원할 조선군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산성 내에 식량이 떨어지고 굶주림과 추위에 목숨을 잃은 병사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왕자 봉림 대군을 비롯한 왕실 가족과 신하들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조는 결국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의 역량에 대해서도, 조선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도 제대로 저울질 하지 못하고 명과의 의리를 내세운 조선 정부는 청과의 전쟁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나 그 준비는 충분하지 못해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짧은 전쟁 기간이었으나 수만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남한산성 내부의 모습



1.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는 등 조선을 크게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많은 전투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보기>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보기> 이치 전투, 진주성 싸움,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세마대 전투, 평양성 전투

2.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무기를 든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합니다. 조선 시대 경기도의 의병이었던 우성전과 홍계남이 한 일을 찾아 적어 보고, 그 분들의 이름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내용의 삼행시를 지어 봅시다.

이름	우성전	홍계남
한 일		
우		홍
성		계
전		남

1. 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었던 인조와 신하들은 그은 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이 강해진 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청과 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광해군의 정책과 인조의 정책을 비교하여 적어 보세요.

인조	광해군
정책	
정책의 장점	
정책의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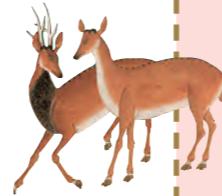
내가 당시 조선의 왕이었다면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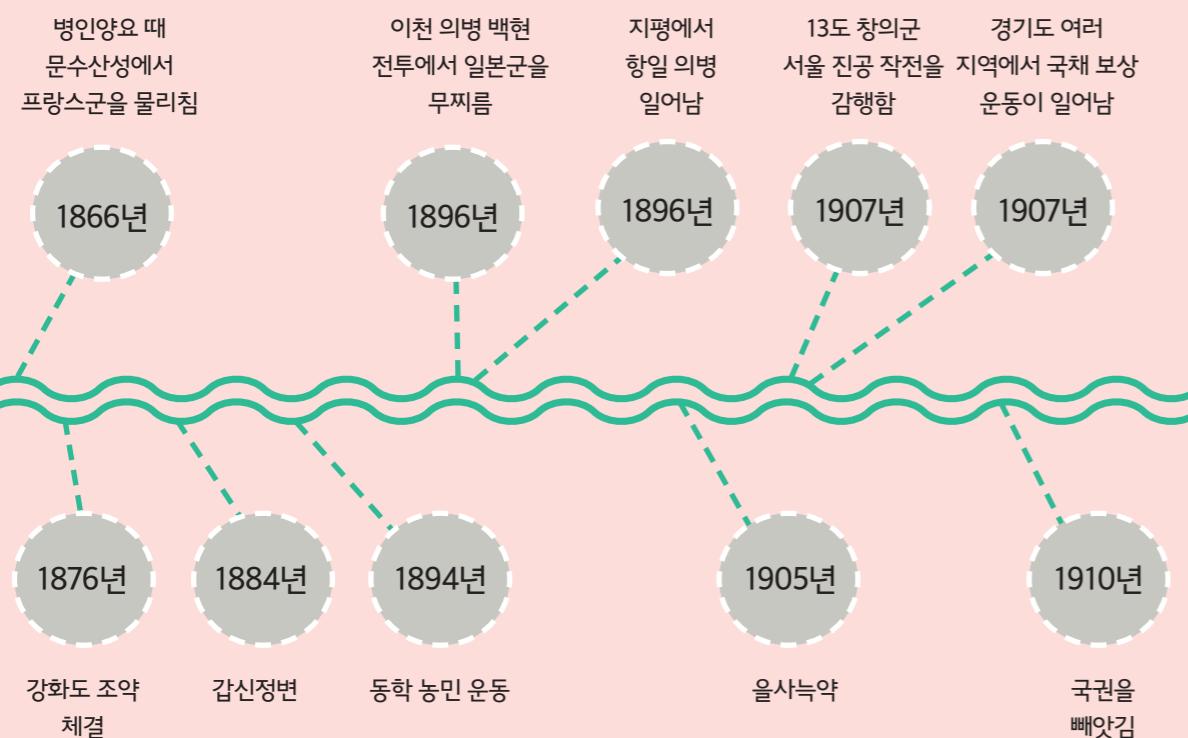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_3

7차시

경기도의 국권 수호 운동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2007년 10월, 우리 문화재청은 미국 앤너폴리스(Annapolis) 소재 미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어재연 장군기'를 10년간 장기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어재연 장군기는 미군이 강화도를 침입하였던 신미양요 당시 빼앗겼던 것입니다. 13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어재연 장군기'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입니다. 특히 외세의 침략적 접근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을 보여 주는 상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19세기 이후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침입에 맞서 우리 국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뜨겁게 전개되었습니다. 경기도 사람들도 이런 국권 수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제국주의를 물리친 병인양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에 가면 1694년에 축성된 문수산성이 강화 갑곶진과 더불어 강화해협을 지키는 요새로 우뚝 서 있습니다. 문수산성의 ‘문수’라는 명칭은 신라 혜공왕 때 산 정상에 세운 문수사라는 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해안 쪽 성벽은 없어지고 마을이 들어섰으며, 문수산 등성이를 연결한 성곽만 남았으나 서문과 북문이 복원되었고, 현재 총 6km에 이르는 산성 중 4km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기억하는 이유는 개항기에 이곳에서 전개된 전투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전투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문수산성

를 강요하는 행위를 책망하고 굴복을 독촉하는 격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로즈 사령관은 프랑스 황제의 이름으로 프랑스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병인박해 당시 처형된 프랑스 선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3명의 대신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프랑스와의 통상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응하지 않았고, 프랑스군을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9월 18일, 조선인 신자로부터 조선군의 출정 소식을 들은 로즈 사령관은 통진 인근의 문수산성으로 120명의 정찰대를 파견하여 그곳을 지키고 있던 조선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손실을 입자 정찰대는 강화도로 돌아왔으며, 로즈 사령관은 대포로 한강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수비하도록 하였습니다.

1886년 9월 6일 로즈 사령관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 상륙하여 9월 7일 강화읍을 정찰하였고, 9월 8일 강화읍을 점령하여 관아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하였습니다. 강화도 함락 소식을 전해들은 조정에서는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급히 순무영을 설치하고 이경하를 대장, 이용희를 중군, 제주목사 양현수를 천총에 임명한 뒤 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서양 종교



이때 양현수가 이끄는 조선군은 강화도에 몰래 들어가 프랑스군을 기습하기로 하고 비밀리에 정족산성으로 집결하였습니다. 로즈 사령관은 10월 3일, 올리비에 대령으로 하여금 군대 160명을 이끌고 정족산성을 공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족산성에 자리 잡은 조선군은 포수들을 중심으로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군은 10월 4일부터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화읍 내의 모든 주요 건물들과 시설들을 파괴하거나 불태웠고, 200척 이상의 배들을 침몰시켰으며, 화약고를 폭파시켰습니다. 특히 조선의 왕실 서고인 외규장각에 들어가 수많은 귀중품과 도서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이 약탈한 보물 중에는 왕실의 행사를 사실적인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의궤』를 비롯한 도서 340권과 은괴 19상자에 들어있던 약 900kg의 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서와 건물마저 불태우는 야만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병인년(1866년)에 서양 세력이 일으킨 소란’이라는 뜻으로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우수한 무기를 바탕으로 수많은 국가와 민족을 약탈하던 제국주의 국가의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야기
풀

의병 전투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넓고개(넓고개)에 세워져 있는 '이천의병전적비'는 1896년 1월 이천수창의소 의병들이 일본군 수비대 1백 명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적군을 거의 전멸시키며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의 현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1988년 7월 이천 지역을 사랑하는 뜻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백현 전투 승리를 기념하고 이천수창의소 의병들의 구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전적비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이천에서 의병이 일어날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성 황후를 잔혹하게 시해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고, 친일 내각을 이용하여 단발령 실시, 태양력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을미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구연영, 김하락 등의 양반 유생들이 이천으로 내려와 이천의 무장 방춘식과 함께 의병을 모집해 '이천수창의소'를 결성해 일본에 대항하였습니다.

1896년 1월 17일, 의병 부대가 결성되자 일본군 수비대 보병 100여 명이 이천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의병 부대는 일본군이 오는 길목에 숨어 기습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조성학, 김태원, 김귀성, 신용희 등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백현을 중심으로 야산에 매복하면서 일본군 수비대를 기다렸습니다. 1월 18일, 일본군이 도착하자 조성학의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전투 상황에 대해 김하락의 『진중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조성학은 적을 맞아들여 두 시간가량 격전을 하다가 갑자기 쇠북을 울리며 퇴군하여 백현으로 향해 달아나니 적병이 고함을 치며 뒤를 쫓아와 백현 아래 당

도하였다. 그때 문득 대포소리가 울리며 구연영은 전면을 가로막고 김귀성, 신용희는 산 중턱으로부터 쏜살같이 내려오고, 조성학은 적의 갈길을 차단하여 사방에서 협격하니 적은 포위망 속에 빠져서 진퇴의 길이 없었다. 나는 군사를 지휘하여 엄습하였는데, 적병의 죽은 자가 수십 명이었고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상한 자가 없었다. 한참 동안 무찌르다 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 초생달은 서쪽 하늘에 떠있는데...(중략)... 더욱 고달은 지고 저녁 10시 경이 되자 적은 한가닥 길을 찾아 암암리에 돌아갔다. 좌우의 우리 군사는 밤새도록 뒤를 쫓아 광주 장항 장터에 도착하였다. 바로 초 닷새날 새벽이었다. 의병 부대는 첫 전투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상대로 낮밤을 계속해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고 후퇴하는 일본군을 추격해 완전히 섬멸하는 쾌거를 올렸다. 당시 일본군 수비대는 180여 명이 출동하여 불과 2~3명만이 살아 돌아갔다'

위의 기록에서 일본군의 피해에 대해서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백현 전투의 대대적인 승리는 전기 의병 사상 최초 대규모로 승리한 전투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습니다. 백현 전투 이전에도 산발적인 전투는 있었지만 이 같은 대규모 승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현 전투에서의 승리는 이후 의병 봉기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기
셋

경기도의 국채 보상 운동

일제는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국가사업의 추진을 빌미로 대한 제국에 많은 빚을 지도록 강요하여 대한 제국을 경제적으로도 장악하였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일제에 진나랏빚(국채라고 함)을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07년 2월 대구에서 김광제, 서상돈 등이 국채 보상의 일환으로 담배를 끊어 돈을 모으자는 단연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각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국채 보상 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 군에서는 보상소 설립과 설립 취지서가 발표되었고, 주민들은 리와 동 단위로 성금을 모아 중앙의 수납처로 송금하였습니다. 성금을 낸 사람들은 직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이 망라되어 있어 국채 보상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지를 짐작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보상을 설립하고 국채 보상 취지서를 발표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채 보상 운동 기념 우표, 2007년
국채 보상 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우표가 발행되었습니다.

- 1) 수원의 경우 3월 9일 이하영, 임근수, 김태제 등이 국채 보상 운동을 제창하고 부내 인민의 애국경재지심을 함유할 목적으로 국한문 취지서를 발간하여 분발을 계도하였습니다.
- 2) 안성군 서리에서는 3월 15일 유희근, 이원세, 정기조 등이 발기하여 국채 보상금 모집소를 설치하고 수합한 의연금 20원을 국채 보상 기성회로 전송하였으며, 국채 보상 취지서를 3월 29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하였습니다.
- 3) 이천군에서는 향무의사라는 단체가 각 리의 의연금을 수합하여 대한매일신보사로 보내 이것이 5월 25일자 '대한매일신보' 광고판에 게재되었습니다.
- 4) 포천군에서는 5월 28일 발기인 이청렬, 이광순 등이 국채 보상 취지서를 발표하고 국채 보상 포의소를 설립하였습니다.
- 5) 여주군의 경우 술과 담배를 끊어 모은 돈으로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하자는 내용의 국채 보상 권고문을 원용한, 한호석의 이름으로 6월 11일자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6월 14일에는 양주군, 20일에는 파주군, 그리고 7월 17일에는 발기인 김

제필, 김한원 명의로 장단군 대남면에서 각각 국채 보상 취지서를 발표하여 각 군민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의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도 있었는데, 이 시기 애국 계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각 군에 설립된 많은 사립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광주군의 염곡사숙에서는 학생 14명이 '우리도 국민인데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는가.'라며 뜻을 모아 점심을 젊고 모은 돈, 15원 45전을 냈으며, 개성 배의학교와 강화군의 월호보창학교도 각각 의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포천군의 신야의숙에서는 사무원들이 일반 학생들에게 국채 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모두 함께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후 성금을 모아 보냈으며, 사립육성의숙에서도 교사와 학생 일동이 의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여주군의 여홍학교 및 연천 사립일신학교 교감 이하 교사, 찬무원, 사무원 등과 양주군 동진관서숙의 교사와 학생 등도 각각 성금을 모아 중앙의 수납처에 기탁하였습니다.

종교계에서도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수원에서는 영국 신부 부재 열과 전 교사 김만준이 성당에서 기도회를 갖고 고종의 애민하신 성의와 전국민의 단연의 生을 토론하고 남녀 교인이 일제히 성금을 모아 120원 40전을 대한매일신보사로 보냈습니다. 또한 남양군에서는 천도교인 10가구가 성금을 모아 신문사에 기탁하였으며, 강화군의 예수교당과 장단군의 사찰인 화장사에서도 교인들이 의연금을 모아 기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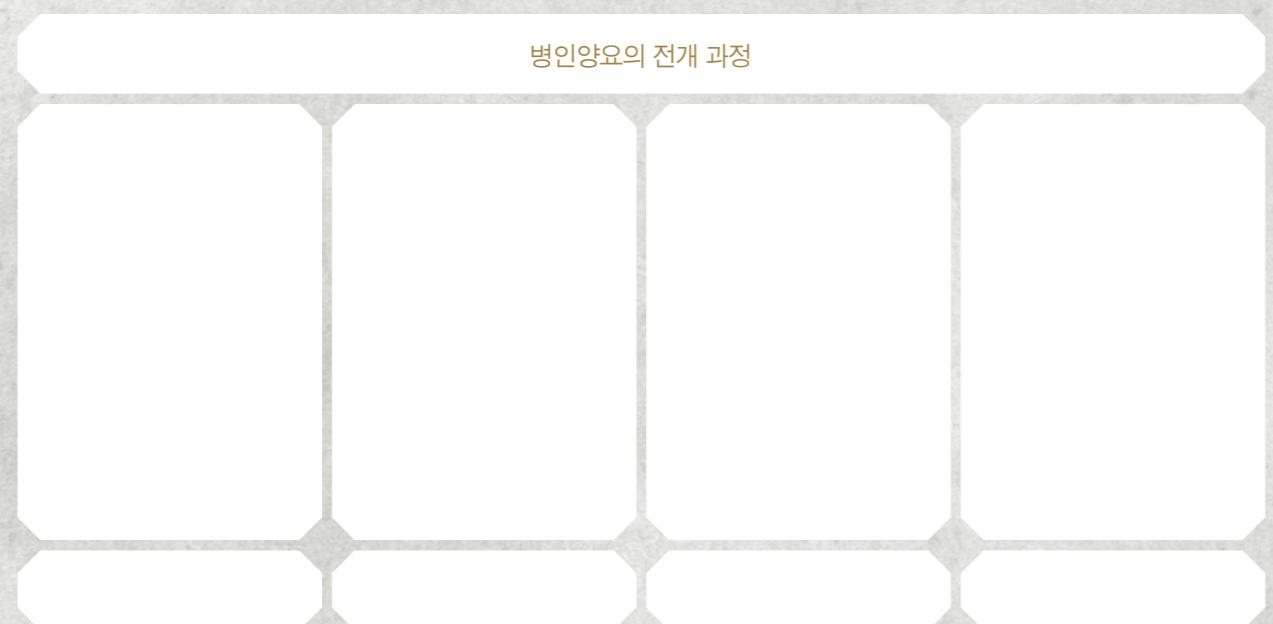
국채 보상 운동에서 여성들의 활동도 두드러졌습니다. 강화군 길상면 초지동에 사는 전 의관 민준식의 부인 장씨는 대안동부인총회로 의연금을 보내자 총회에서 장씨에게 편지를 보내 강화군부인회 설립을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남양군, 안성군, 김포군 등지에 인천국민적성회, 남양군부인의성회, 안성군국채보상부인회, 김포군 검단면 국채보상의무소 등을 설립하고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모금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생각
나누기



1. 병인양요의 전개 과정을 4컷 만화로 그려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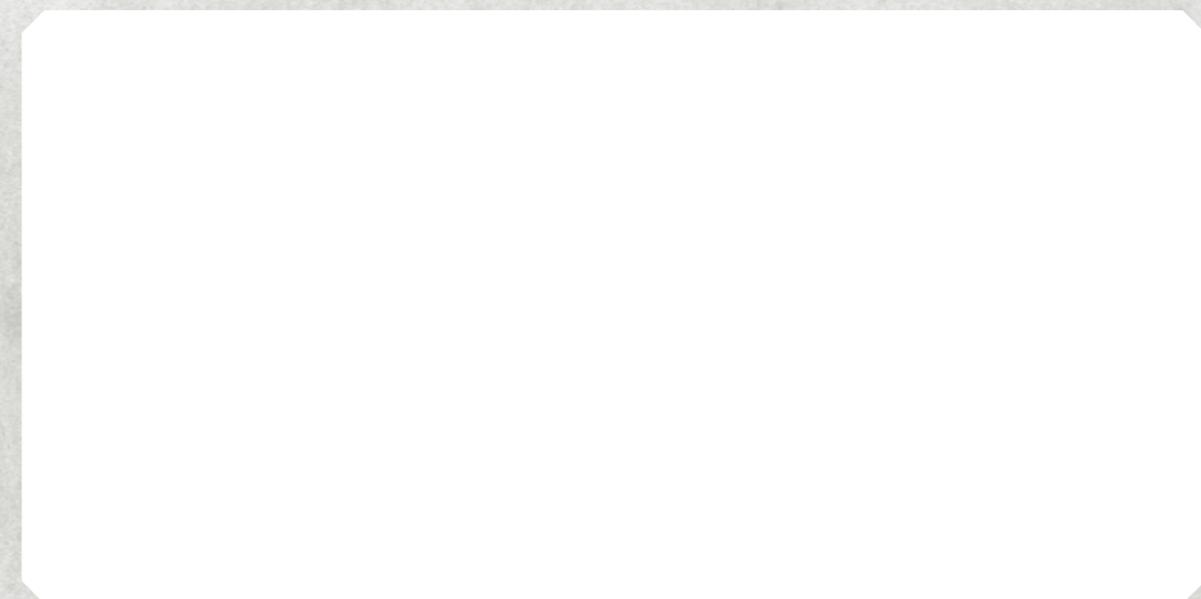


2.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한 방식을 잊글에서 찾아보고 내가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성금을 마련할 것인지 방법을 적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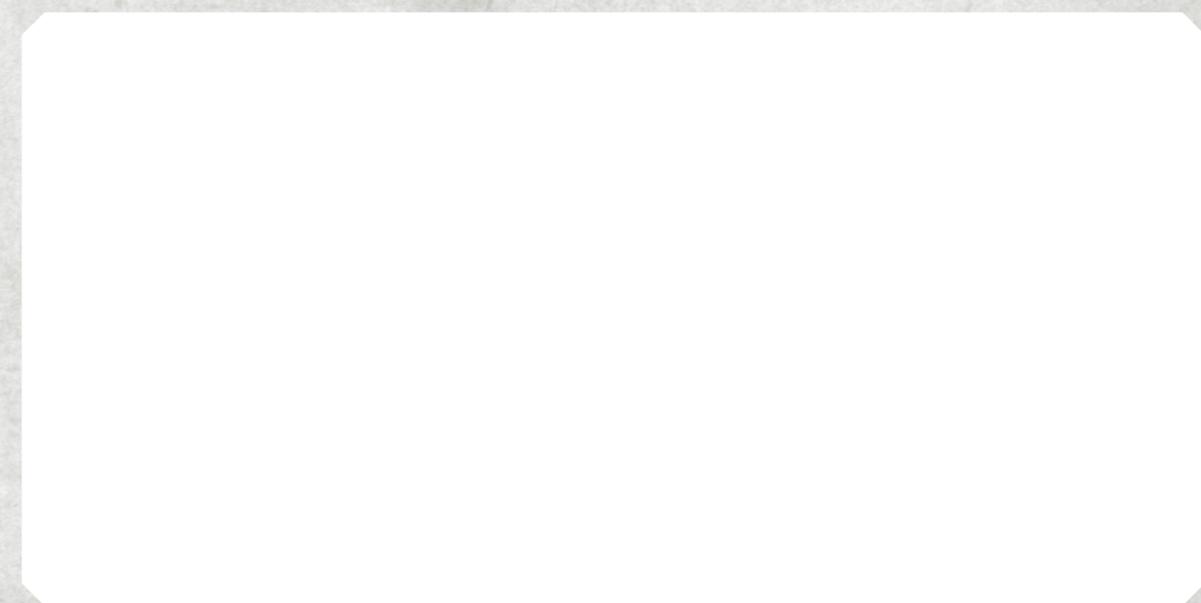


생각
더하기

1.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할 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학생 신분으로 전투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무엇이 있을까요?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_4

日光市

경기도의 독립 운동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경기 지역 3.1 운동	수원 지역 비밀결사 혈복단, 구국민단 조직	수원고농 건아단, 조선개척사 결성	신간회 성남지회를 시작으로 지역 지회를 설립함	샘골학원 최용신 민족 교육 활동
1919년	1919년	1927년	1927년	1931년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	신간회 창립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브나로드 운동
1919년	1919년	1927년	1929년	1931년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100년 전 경기도에서는 어느 지역 하나 빠짐없이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치열하게 만세 운동을 펼쳐 나갔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학생, 지식인, 노동자, 농민, 여성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3.1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경기도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1 운동에 참여하였을까요? 3.1 운동이 끝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요?

이번 시간에는 일제 식민지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경기도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는지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경기의 3·1 운동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전개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철도를 따라 대도시에서 중소 도시로, 그리고 중소 도시에서 농촌과 어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1 운동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지방은 대부분 장날을 맞아 발생하여 5~10일 간격으로 되풀이되었습니다.



3·1 운동은 주로 천도교와 기독교 등 종교인들과 학생이들이 참가하였으며, 여기에 농민들이 함께함으로써 순식간에 전 민족 운동으로 파급되었습니다. 3·1 운동에서 학생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3·1 운동은 밭원지인 서울과 가까운 지역부터 시작되어 먼 곳으로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과는 달리 처음부터 약 2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끈기 있게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국 어느 도보다 격렬하였고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특히 향남(지금의 화성 지역), 안성, 이천, 양평의 시위는 두드러졌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들어서자 시위 지역이 차츰 전 도내로 파급되었습니다. 평택, 안성, 파주 교하, 양주 와부, 가평 북면 등의 시위를 시작으로 하순에 이르러서는 고양, 시흥, 광주, 양주, 부천, 김포, 수원, 용인, 안성, 이천, 양평, 가평, 포천으로 확산되었으며, 4월에는 진위, 여주, 연천, 장단으로 파급됨으로써 일제 강점기 경기도 내 행정 구역 20여 개 군 중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3·1 운동의 특징은 여러 곳에서 한밤중에 횃불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위 방법은 주로 구릉이나 평야 지대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군중 동원 수단인 동시에 시위 군중의 단결력과 연대감을 강화시켰으며, 시위 규모를 실제 이상으로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횃불 시위는 수원 화성 방화수류정과 오산 독산성에서 일어난 시위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처음 3월 초에는 평화적인 만세 시위로 전개되었는데, 3월 말에 들어서면서 점차 무력시위로 변해 갔다는 점입니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가 무력시위로 변한 이유는 일제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생기면서 시위대의 감정이 격화되었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것이 시위 대를 자극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력시위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해산된 시위 군중들이 체포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지금의 파출소에 해당함) 등의 일제 통치 기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일제 헌병 경찰이 총과 칼을 사용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위 군중에 대한 일본 군경의 발포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주재소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우편소 등 일제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하여 파괴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군중이 일제의 군경에 의하여 희생당하였습니다.

경기도 사람들이 참여한 3·1 운동은 이후 독립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라 잃은 민족의 가슴에 깊이 심어주었고, 이러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제 강점기 사회 운동을 주도한 경기도 사감들

1919년 3·1 운동이 전개된 이후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민족 운동 방법론이 모색되었습니다. 국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탄생하였으며, 홍범도, 김좌진 등이 독립군을 이끌고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무장 독립군으로는 의병을 이어 1910년대부터 만주·시베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무장 항쟁을 전개한 조선 항일 독립군을 비롯하여 많은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920년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20~1925년 사이에 무려 3,929회나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대표적인 전투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3·1 운동의 성과로 일제의 통치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된 틈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벌인 노동 쟁의와 소작 쟁의,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물산 장려 운동 등이 이 시기에 전개된 대표적인 사회 운동입니다. 이러한 사회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어져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두 계열이 힘을 합쳐 만든 단체가 ‘신간회’입니다. 1927년 2월부터 1931년 5월까지 활동을 이어간 신간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약 150여 개의 지회와 최대 약 4만 명에 이르는 회원을 가진 일제 강점기 때 가장 규모가 커던 반일 사회 운동 단체였습니다.

신간회가 창립되자 경기도에서도 뜻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27년 6월 10일 경성지회를 시작으로 8월 8일 성남, 24일 광주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0월 17일 수원지회, 11월 12일 안성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28년 3월 20일 마포 지역과 고양의 서부 지역을 통합한 경서지회 설립, 6월 10일 강화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29년 8월 15일 장호지회, 1931년 1월 3일 광주 지역에서 광흥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설립 연도는 분명치 않지만 용인지회, 개성지회, 장연지회 등이 있으며, 본부 직속으로 양주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신간회 지회들은 강연회와 토론회를 주최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노동 쟁의와 소작 쟁의를 지원하는 등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활발한 독립 활동을 벌였습니다.



192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10일 경성지회 ◆ 8월 8일 성남지회 24일 광주지회 ◆ 10월 17일 수원지회 ◆ 11월 12일 안성지회 ◆ 12월 5일 인천지회
192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0일 마포 지역과 고양의 서부 지역을 통합한 경서지회 설립 ◆ 6월 10일의 강화지회
192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15일 장호지회
193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3일 광주 지역에서 광흥지회 설립 ◆ 용인지회, 개성지회, 장연지회 등이 있으며, 본부 직속으로 양주지회 설립

한편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자는 노력은 여성 운동 단체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27년 4월 26일 김활란, 유영준, 유각경 등 민족주의 진영과 황신덕, 박원희, 정종명, 주세죽 등 사회주의 진영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발기총회를 열어 모임 이름을 근우회라고 정하고 5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활동하였습니다. 근우회는 2~3년간 지방 조직 확대에 힘을 쏟았으며, 1929년까지 전국에 57개, 해외에 3개의 지회를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근우회는 교육의 성별 차별 철폐 및 여자의 보통 교육 확장, 여성에 대한 봉건적·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의 철폐,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조혼 폐지 및 혼인·이혼의 자유,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부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 2주간의 휴양과 임금 지불, 부인 및 소년 노동자의 위험 노동 및 야간작업 폐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이야기
셋

경기도민의 건국 준비 운동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배를 확신한 독립운동가들은 해방 이후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건국 강령을 선포하고,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운형 등이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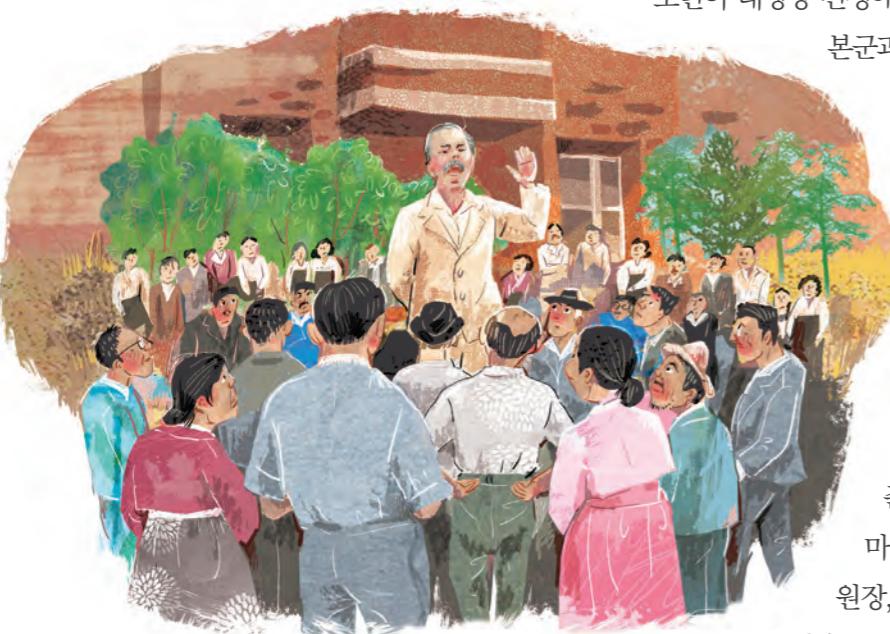
이때 조선 총독부는 패망 이후 조선에서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송진우에게 치안권과 행정권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진우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만이 통치 권력을 이양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총독부는 여운형에게 이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총독부가 자신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여운형에게 항복 후 치안권과 행정권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여운형이 조선의 청년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어 한반도 북쪽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 본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자, 마침내 일본은 8월 14일 연합군에 대해 무조건 항복 문서를 전달하고, 일본 천왕이 8월 15일 낮 12시에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8월 15일 오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조직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17일에는 여운형을 위원장, 안재홍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8월 26일에

는 건국 사업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언과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운형은 해방 1년 전에 조직하여 활동을 해오던 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건국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8월 31일, 건국 준비 위원회는 12부 1국의 체제를 갖추어 준정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도 건국 준비 위원회 조직은 활발히 진행되어, 8월 말에는 건국 준비 위원회 지방지부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이 전국적으로 145개에 이르렀습니다.

건국 준비 위원회는 1945년 9월 6일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여 건국 준비 위원회를 해산하고 '조선 인민 공화국'이라는 정부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인민 공화국의 '전국인민위원회'에는 이승만, 김구, 김성수 등의 인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민 공화국 수립은 건국 준비 위원회 산하의 각 지방 지부들을 '인민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민 위원회가 실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포천, 시흥, 수원, 용인, 평택 등이었고, 수원과 그 주변 대부분의 군들에서 인민 위원회는 군청 청사를 인수하여 활동하거나 그 근처 장소에 근거지를 두었습니다.

경기도 이천군에서는 9월 29일 군민들이 인민 대회를 열고 군, 면, 동, 리 각 지역 위원을 선거하여 친일파들을 내쫓고 군 업무를 군민들이 직접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양군에서는 11월 5일 조선해방청년동맹사무소에서 군민 대표 50여 명이 참석하여 인민 위원회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인민 위원회는 여운형의 고향인 양평군과 이천, 여주, 안성 및 가평에서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용인에서는 경찰 및 군청 직원들의 친일 경력을 조사하기 위한 인민 재판소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은 우리민족의 독자적인 정부 수립 운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은 조선 인민 공화국을 비합법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하였습니다. 결국 해방 직후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17일 건국 준비 위원회 수립 장면 (YMCA 건물)(왼쪽)
건국 준비위원회가 사용한 깃발 (오른쪽)



1. 경기도에서 일어난 3.1 운동의 특징을 적어 보세요.

3월 초

3월 말 이후

까닭

2. 다음은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단체와 활동 내용을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근우회

◎

- ◊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신간회

◎

◎ 전국적 여성 운동 조직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

◎ 조선 인민 공화국

1. 다음은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 이양 제의를 받았을 때 요구했던 5대 요구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 이양 제의를 받았다면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여운형과 같은 민족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 ① 전국적으로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 ②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해 줄 것
- ③ 치안 유지와 건국 운동을 위한 모든 정치 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 ④ 학생과 청년을 훈련·조직하는 일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 ⑤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조직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 것

요구안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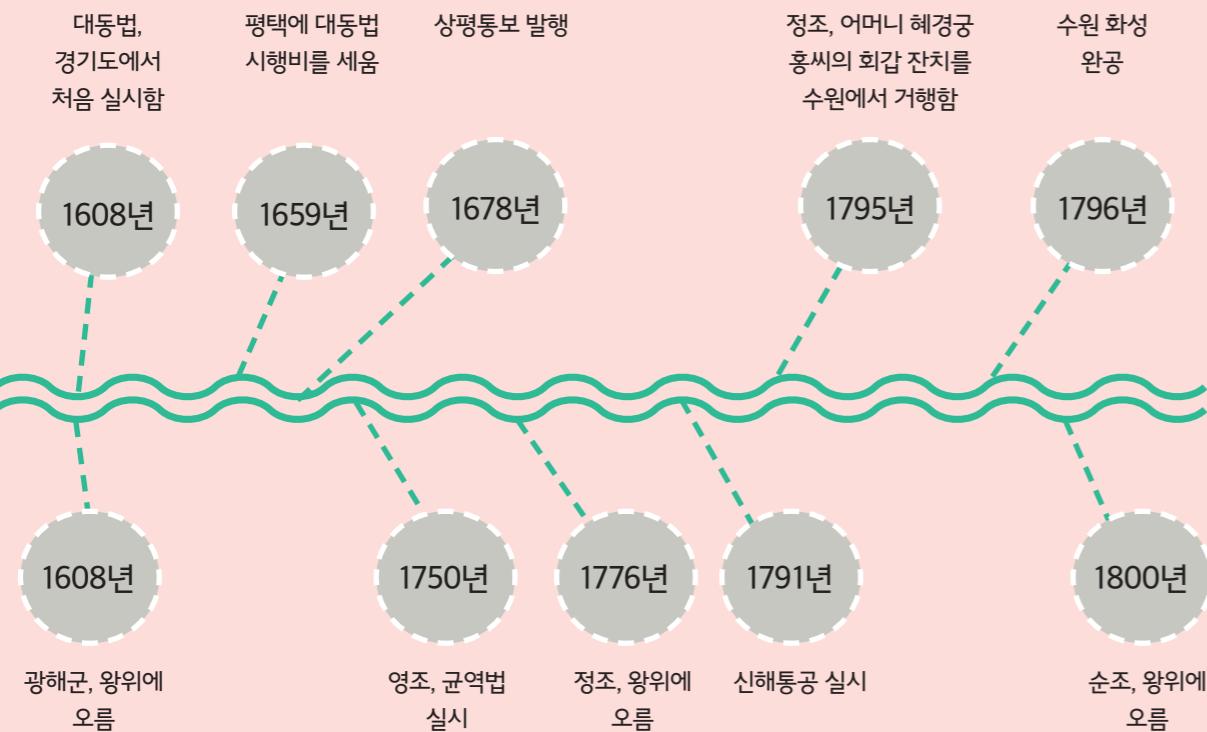
경기도의 문화 발전 노력_1

경기도가 이끈 조선 후기 경제 발전



포토시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조선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성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선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토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받아들이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대동법, 균역법 등 세금 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조선 후기에는 농업은 물론 상업과 수공업에서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조선 후기 경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경기도 사람들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대동법



대동법 시행 기념비

평택시 소사동에는 대동법 시행을 기리기 위해 평택 사람들이 세운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있습니다. 1659년(효종 10)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애쓴 김육이 사망하자 그분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이 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럼 왜 평택 소사동에 세웠을까요? 조선 시대 소사동은 마을 중앙으로 조선 시대 삼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가장 큰 길인 삼남대로가 지났고,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오는 첫 번째 역원인 소사원이 있어 커다란 장이 섰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오가는 길목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동법은 어떤 법이기에 백성들이 김육의 공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비석을 세운 것일까요? 김육은 1638년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땅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지주에게 절반을 바치고, 또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공납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제일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공납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방의 특산물을 바쳐야 하는데 농사짓다 말고 특산물을 생산하는 일을 따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관청에서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에게 바다 생선을 바치라는 경우처럼 그 지방 특산물이 아닌 다른 물품을 내야할 때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방납업자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내야할 공납을 대신 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시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빼앗아가는 방납의 폐단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집집마다 똑같은 액수의 공물을 바쳐야 하는 불공평한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내는 것이 왜 잘못이냐구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 달에 천만 원 벼는 부자에게 10만 원의 세금은 큰 어려움 없이 부담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벼는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은 꼭 사야 할 생활필수품을 사야 할 돈이거나,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치료비로 써야 할 소중한 액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벼는 사람이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거나 내지 않는 것이 세금에서 공평성(평등이 아니라 공평)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대동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동법은 각 지방 특산물을 현물이 아니라 쌀, 옷감, 돈 등으로 간편하게 내도록 한 제도였으므로 방납의 폐단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세금의 액수를 집집마다 똑같이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땅이 많은 부자는 많이 내고 땅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대동법 시행과 전국 확대를 외치는 김육의 주장은 대동법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던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양반 관료들은 대부분 땅이 많은 지주들이었으므로 당연히 관리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김육의 주장에 반대하여 시행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면 세금이 잘 걷히고, 그러면 나라 살림도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세금 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줘어쩔 방법만 해결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김육은 '대동법을 시행하여 가난한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농민들이 도적이 될 뿐'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반 지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농민들은 특산품을 현물 대신 쌀이나 벼, 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궁궐이나 관청에서 사용할 여

러 가지 물건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공납으로 거둔 물건이 아니라 대동법 시행으로 받은 돈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전국에서 사서 납품하는 상인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자 상업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국제 무역을 주도한 경기도 사감들

조선 후기 대외 무역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상인인 개성 상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성 상인은 중국·의주·평양·개성·서울·동래·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대외 무역은 나라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무역인 개시 이외에도 상인들이 국가의 허가 없이 무역을 하는 민간 무역인 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국제 무역. 조선 후기에는 인삼을 매개로 한 국제 무역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개성 상인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명약 고려 인삼

청과의 후시 무역을 주도한 상인은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만상이었습니다. 개성상인들은 책문 후시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의주의 만상에게 수출 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또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비단과 약재, 책 등 청의 생산품을 선별하여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의주 상인을 조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청으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종이류, 옷감, 소가죽과 수달피 등의 가죽, 각종 해산물 등이었습니다. 개성상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류와 가죽류를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 이를 만상을 통해 청에 수출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성상인은 인삼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한 인삼 상인으로서 18세기 후반부터 대청 무역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원기를 보충해주는 신비의 약재로 중국과 일본은 물론 멀리 유럽 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인삼이 재배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인삼의 약효가 제일 높아서 따로 '고려 인삼'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인삼의 품질은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로 주로 판단하는데요. 이 사포닌이 중국과 일본의 삼에 비해 40%가량 높습니다. 또한 사포닌의 종류도 미국의 삼 14종, 중국의 삼 15종에 불과하지만 고려 인삼은 22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었던 고려 인삼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2천년 이상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에 수출되는 거의 유일한 상품입니다. 영조 때 기록을 보면 개성상인들이 조선에서 생산된 인삼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은화를 가지고 다시 중국과 무역하는데 사용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기

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성상인들이 조선의 고려 인삼을 중심으로 중국의 비단과 일본의 은을 연계시키는 국제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은 원래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산삼'입니다. 산삼은 구하기가 어려워 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까지 재배를 시도하였지만 대량으로 재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왕실과 양반을 비롯한 국내 수요에다가 중국과 일본 수요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산삼을 마구 캐면서, 18세기 초반에 들어서면 산삼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어 수출할 산삼을 구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18세기에 들어서서 햇빛을 가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인삼으로 대량 재배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인삼 대량 재배법을 개발한 사람은 개성 사람 박유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성상인은 인삼의 재배를 확산시킨 주역이었습니다. 개성상인은 19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개성 일대에 인삼밭('삼포'라고 함)을 만들어 대량으로 인삼을 재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캔 인삼('수삼'이라고 부름)을 가공하여 보관이 편하고 약효도 높은 홍삼을 생산하였습니다.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은 특히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약효도 더욱 좋아진데다가 습한 기후에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성에서 생산된 홍삼은 각 지역에 설치된 개성상인의 분점(송방)을 통해 육로는 물론이고 해상으로도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서해에서는 중국 배는 물론 서양 배들도 와서 우리 상인들과 무역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이야기
셋

경기도 각지에서 발전한 장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치른 후 폐허가 된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 상품 작물 재배, 민영 수공업 발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조선 후기에는 농업은 물론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상공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경기도 여러 지역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당시 경기도에 속했던 강화도는 서울과 개성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한강 하류와 서해의 수상 교통로를 이용해 상인들과 일반 농민들이 생산물을 시장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어민들은 물고기와 조개들을 잡아 한강을 거슬러 서울까지 가서 팔려고 하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를 한다고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경기 북부의 적성(지금의 파주시)은 산이 깊고 험해 농사는 잘 안되지만 땅나무를 팔아 농사를 짓는 것보다 나은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주에서는 여강(여주를 감싸고 흐르는 남한강을 이렇게 부름)을 끼고 있는 이포 주민들이 서울로 가는 뱃길을 이용하여 장사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인들을 선상이라고 하지요.

지금 화성시에 속하는 남양은 일찍부터 서해안의 해상 교통로로 유명하였는데,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소금을 포구와 항구를 통해 판매하는 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남양의 장시에서는 보통 때도 장날에 소금이 100여 항아리씩 매매되었는데, 장을 담그는 3~4월이나 김장철인 9월에는 하루에 팔리는 소금의 양이 수백여 항아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서해안의 안산에서도 역시 생선과 소금을 판매하였는데, 소금의 생산과 판매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포구의 여자 행상.
서해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 등을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장
시로 팔러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개설되었던 장시 가운데 가장 큰 장시는『만기요람』에 전국 15대 장시로 소개된 광주의 송파장과 사평장, 교하의 공릉장, 안성의 읍내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남쪽 언덕에서 열렸던 송파장은 한강 하류의 교통 요지인 송파나루를 중심으로 열린 장시입니다. 한강과 서해뱃길을 통해 3남(충청, 전라, 경상) 지방과 북쪽 상인들까지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5일마다 열리는 장이 실제로는 거의 매일 열렸다고 합니다.

파주 교하의 공릉장이 큰 장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물산이 모이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조선 시대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장은 18세기 초에 이미 전국에서도 규모가 큰 대장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안성은 큰 강을 낀 포구가 아니라 뱃길을 통한 교역은 불리하였지만, 육로로 서울과 삼남 지방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 전국의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안성장으로 모였습니다. 조선 후기 안성의 읍내장을 중심으로 안성 군내장, 양성 현내장, 평택 관문장, 수원 오산장, 양성 소시장, 진위 신장 등 인근의 장시 6곳이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정조 때에는 수원 화성이 건설되면서 수원의 장시가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장시는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시장의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여성들은 장날을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팔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등 활발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송파 산대놀이, 양주 별산대놀이 등 장날 열리는 공연은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생각
나누기



1. 김육이 대동법 시행을 주장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http://vnx.fr/pages/28793/%EB%8C%80%EB%8F%99%EB%B2%95>)

2-1. 대동법 실시를 신하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대동법 실시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을 각각 쓰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대동법 실시로 손해를
보는 사람과 그 이유

대동법 실시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그 이유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봅시다.

생각
더하기

1. 제시 단어들을 조합하여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예시>

대동법 방납 광해군 경기도 폐단 처음

…→ 방납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1조] 제시 단어

김육 대동법 평택시 대동법 시행 기념비 영의정 기념

…→

[2조] 제시 단어

대동세 특산물 쌀, 옷감, 동전 토지 1결당 12두 현물 대신

…→

[3조] 제시 단어

대동법 양반 지주 일반농민 결과 부담 공인

…→

[4조] 제시 단어

개성상인 인삼 무역 송상 의주 만상 은화

…→

[5조] 제시 단어

장시 보부상 송파장 안성장 시전상인 문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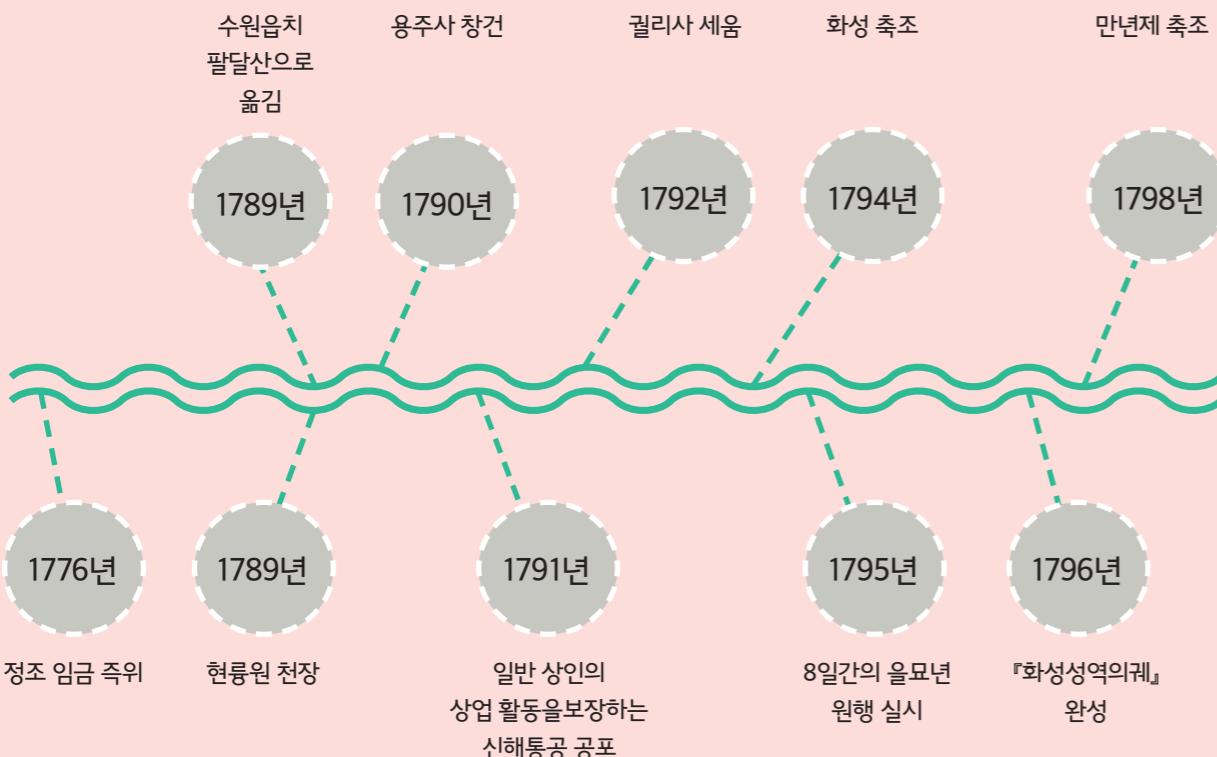
경기도의 문화 발전 노력_2

10차시

조선의 신도시 화성 건설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수원 화성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수원 화성에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거예요. 커다란 팔달문과 장안문, 높다란 서장대가 있고, 화홍문 아래 흐르는 수원천과 아름다운 방화수류정을 기억할 겁니다.

수원 화성이 건설된 것은 2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처럼 온전한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화성성역의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왕실과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궤』입니다.

개혁의 신도시 수원 화성도 바로 그 『의궤』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지요. 이번 시간에는 정조 대왕과 수원 화성 그리고 『의궤』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정조 대왕과 수원 화성

1 사도 세자에서 장현 세자로 추존(追尊)되었고, 고종 황제 때 장조 황제로 높혔습니다. 즉, 사도 세자, 장현 세자, 장조는 모두 같은 분입니다.



정조 대왕이 탄생한 창경궁 경춘전

1752년 9월 22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정조 대왕이 태어났습니다. 1년 전 겨울 장현 세자¹의 꿈에 용이 여의주를 안고 침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조 대왕의 태몽이었지요. 장현 세자는 꿈속에서 본 대로 그 용을 그려 벽에다 걸어두었습니다. 정조 대왕이 태어나기 하루 전에 큰 비가 내리고 놀성이 일면서 구름이 자욱해지더니만 몇십 마리의 용이 꿈틀꿈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조 대왕이 탄생하자 우렁찬 울음소리가 마치 큰 쇠북소리와도 같아서 궁중이 다 놀랐으며, 우뚝한 콧날에 위아래 눈자위가 평펴짐한 눈에 크고 깊숙한 입 등 의젓한 모습이 마치 어른 같았다고 합니다. 1759년 8살이 된 정조 대왕은 영조 대왕과 세자의 뒤를 잇는 왕세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762년 2월 2일, 11살이 된 정조 대왕은 명광전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1762년 혼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되어 정조 대왕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11살이 되던 그 해 할아버지 영조 대왕의 명령으로 아버지인 세자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손은 할아버지 영조 대왕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조 대왕은 며느리인 세자빈과 손자인 세손 등을 정조의 외가인 좌의정 홍봉한의 집으로 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사도 세자는 뒤주에 갇혀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영조 대왕은 세자가 죽고 난 뒤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이는 '애석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주 배봉산 북쪽 언덕에 장사지내고 수은묘라 하였습니다. 1764년 2월 영조 대왕은 왕세손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왕세손을 사도 세자의 형 효장 세자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죄인으로 죽은 사도 세자의 아들로는 왕위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12월, 영조 대왕은 왕세손에게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대리청정을 명하였고, 왕세손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한 대리청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 대왕이 경희궁의 집경당에서 승하²하고, 3월 10일 정조 대왕이 경희궁의 숭정문에서 조선 제22대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정조 대왕

은 영조 대왕 왕비를 왕대비로, 어머니 혜빈을 혜경궁으로 높였으며, 아내 세손빈을 왕비로 책봉하고, 양아버지 효장 세자를 진종 대왕으로 추증하였습니다.

정조 대왕은 즉위 후 사도 세자에게 존호를 추상하여 장현이라고 하고 수은묘는 영우원이라고 이름을 높였으며, 사당은 경모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1789년 가을, 정조 대왕의 고모부인 박명원이 영우원이 결함이 많다고 건의하여 영우원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용릉입니다. 그 곳은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형상(반룡농주혈)이라는 풍수지리에서 아주 좋은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은 관청인 수원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왕릉을 쓰고자 할 때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지만 관청을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다른 곳으로 왕릉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 대왕은 관청인 수원부를 팔달산 아래로 이전하고 행궁을 설치하였으며, 백성들도 이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의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이 새롭게 건설되었습니다.



현릉원이 다 지어지면
임금님을 자주 볼 수 있다.

새 도시로 이사 가면
형편이 나아진대!

¹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말입니다.

²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야기
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화성의 무엇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했을까요?

수원 화성은 약 5.4km 길이의 성곽입니다. 단순히 성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0년 전 새롭게 건립된 신도시입니다. 평지에 건설된 중국 성곽이 네모반듯하게만 들어지는 것과는 달리 자연 지형을 살려 구불구불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화성의 특징입니다. 약 5.4km의 성곽에는 동장대, 서장대를 비롯한 각종 군사적 방어 시설을 비롯한 많은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관아와 행궁의 행정 시설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성에서 삼남으로 이어지는 대로가 화성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로 주변에 여러 종류의 상점과 대다수 집들이 밀집되어 중심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대로와 나란히 동쪽으로 수원천이 정비되어 성곽 내의 여러 연못과 함께 도시의 상하수도 역할을 하며, 한편으로 성안 사람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도시 한가운데 관아를 두고 그 주변에 백성들의 살림집이 있었으며, 성곽 밖에는 문묘와 사직단, 그리고 도시의 수호신을 모시는 성신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조선 시대 일반적인 도시 구성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화성만이 가지는 뛰어난 도시 구성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체 방어를 위한 공심돈, 각루, 노대 등 다양한 방어 시설이 성곽에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화성에는 행궁이 건설되었습니다. 왕이 행차하였을 때 머무는 곳을 행궁이라고 하는데, 보통 행궁은 따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쓰고 있던 관아나 객사를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 화성은 처음부터 행궁이 따로 건설되었습니다.

게다가 성곽 밖에 도시 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 시설로 거대한 저수지와 농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성곽 밖 화성 일대의 정치적·경제적 균간이 되는 시설물로 장안문 북쪽에 대유둔전과 만석거가 있고 팔달산 서쪽에 축만제(지금의 서호)와 서둔전이 있습니다. 이 곳이 신도시 산업과 경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 팔달문 남서쪽에는 화성 도시 건설의 시발점이 된 현릉원이 있고, 그 아래에는 현릉원의 원찰인 용주사가 있습니다.

화성은 정조 대왕의 효심만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 첨단 과학과 경제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신도시입니다. 그 안에는 정치, 경제, 군사, 교통, 상업 등 다양한 도시의 역량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화성은 정약용에 의해 설계되었고, 채제공의 감독 아래 수원유수 조심태의 지휘로 1794~1796년 사이에 완공되었습니다. 『화성성역의궤』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중기, 녹로 등 특수 건축 장비들은 화성 건축을 위해 새로 디자인되고 제작되었습니다. 처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1794년 1월 착공하여 1796년 8월 32개월, 아니 중간에 6개월 동안 공사를 쉬었던 것을 빼면 실제 공사 기간 26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야기
셋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로 본 조선의 뛰어난 기록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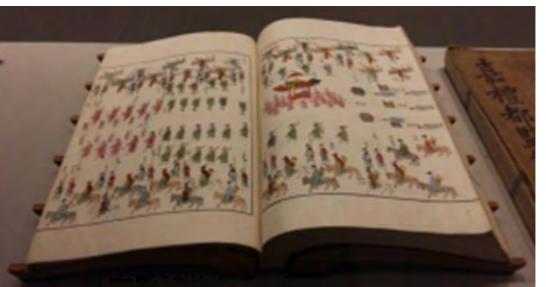
의궤란 무엇일까요? 고유한 기록 유산인『의궤』는 조선 왕조(1392~1910) 520여년간의 왕실 의례에 관한 기록물, 즉 보고서입니다. 왕실의 중요한 의식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여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뛰어난 기록 문화를 보여 주는『의궤』를 유네스코는 2007년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997년 수원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의궤』의 힘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는 축조 당시의 특성이 잘 남아 있는 진정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수원 화성은 6.25 전쟁 당시 많은 성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엄격한 고증에 따라 전통적인 기술과 재료를 사용해 복원하였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화성이 축조 당시의 특성이 잘 남아 있어 높은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수원 화성과 관련된 두 개의『의궤』를 소개할게요. 먼저『원행을묘정리의궤』입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을묘년에 정리소라는 관청에서 1795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정조가 수원 화성과 현릉원을 행차했던 일을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이 책은 권수 1권, 본문 5권, 부편 4권으로 모두 10권 8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을묘년은 정조 대왕의 어머니이자 사도 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이 있던 해입니다. 또한 살아있었으면 아버지 사도 세자도 회갑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조 대왕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8일간의 원행을 가집니다. 백성들에게 자신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효와 강력한 왕권을 보여 주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펼쳤

습니다.『의궤』에 기록된 정조 대왕의 일정을 한 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날, 정조 대왕은 창덕궁에서 나와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 뒤 시흥 행궁에서 하룻밤을 잔습니다. 둘째 날, 화성 행궁에 도착한 정조 대왕은 셋째 날, 향교를 참배하고, 과거 시험을 베풀어서 인재를 등용합니다. 넷째 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에 참배를 하고 오후에는 서장대에 올라 대규모 낮 군사 훈련과 밤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다섯째 날, 가장 중요한 행사인 어머니 회갑 잔치를 벌입니다. 여섯째 날, 백성들에게 쌀과 죽을 나누어주고 행궁에서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 잔치를 베풁니다. 낮에는 정조가 방화수류정에 올라 화성 축성 상태도 살핍니다. 오후에는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날, 화성을 떠난 정조 대왕은 시흥 행궁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여덟째 날, 다시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 창덕궁으로 돌아옵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전에는『의궤』를 만들 때 직접 글씨를 썼는데, 정리자라는 동활자로 만들어 인쇄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에서도 권수·본편·부편 등의 편집 방식을 취하여 이후에 제작되는『의궤』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의궤』의 그림은 정교한 새김 기술을 바탕으로 당시의 새로운 화풍을 반영하여 단원 김홍도 화풍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화성성역의궤』

또한 정조 대왕은 화성 행차 장면을 별도 능행도병풍으로 제작하여 궁중에 보관하였으며, 공을 쌓은 신하들에게도 하사하였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중앙박물관, 리움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화성성역의궤』는 수원 화성 축성 공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뜻에서 정조 대왕의 명령으로 1796년 9월에 시작하여 그 해 11월에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어 1801년 순조 1년 9월에 인쇄·발간된 이 책은 권수 1권, 본편 6권, 부편 3권으로 구성된 10권 10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그림과 설명들을 싣고 있어 당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여 책이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기록에 깜짝 놀랄 겁니다.

생각
나누기



1. 정조 대왕이 을묘년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 화성과 현릉원에 행차했던 8일간의 여행입니다. 이야기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정조의 여정을 적어 보세요.



생각
더하기

2. 정조 대왕이 처음 물하셨던 초장지는 죽어서도 아버지의 발치에 물혀 모시겠다는 정조 대왕의 효심을 보여 줍니다. 정조 대왕은 그만큼 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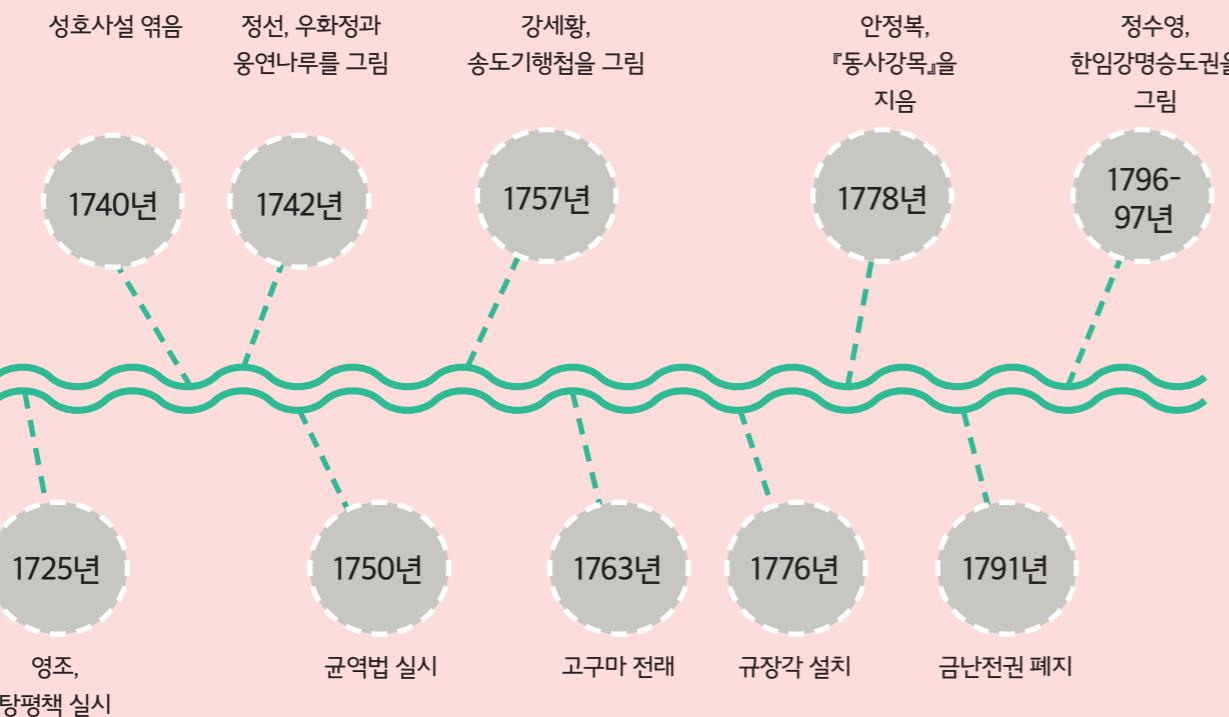
Tip. 초장지 보존을 위해 각자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봅시다.

나라(중앙정부)	경기도(지방정부)	내가 살고 있는 시,군	우리 가족

경기도가 주도한 조선후기 문화발전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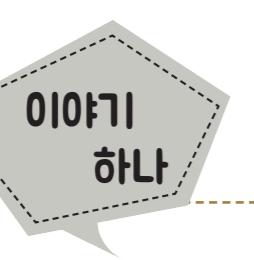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18세기 전반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피해에서 벗어나 농업 생산력이 회복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게 되면서 실용을 중시하는 학문인 실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미술계는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초상화, 동물화 등과 같은 다양한 그림들이 발전한 문화 절정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실학과 미술의 발전을 살펴볼까요?



실학의 본고장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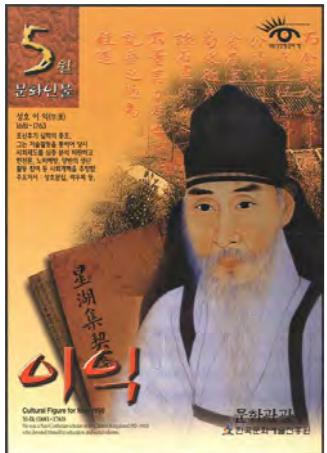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 중 한 사람인 이중환은 우리 국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지리서인 『택리지』를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이중환은 경기도 지역을 300년 동안 우리나라 학문의 중심지였으며, 뛰어난 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학문의 중심지답게 경기도에서는 조선 후기 개혁 사상인 실학을 주도한 많은 실학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경기도의 실학자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성호 이익을 소개합니다. 이익은 안산에 거주하면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학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천문·지리·율산·의학 등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졌으며, 직접 농사를 지으며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체험하고 이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제안을 책에 담았습니다.

농사를 짓던 경험을 토대로 조선 후기 가장 큰 문제점이 양반 지주가 많은 토지를 갖고있고, 실제 농사짓는 농민은 토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를 한정해야 한다는 '한전론'을 주장하였습니다. 한전론은 집집마다 가질 수 있는 일정 정도의 토지를 정하고 그 토지는 사고 팔 수 없도록 하고, 그것보다 많은 토지를 가지고자 할 때는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균등하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빈부의 양극화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익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비를 없애고, 양반도 농업, 상업 등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양의 과학기술에도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익의 사상은 기존 학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젊은 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이익의 개혁 사상을 공부하며 자신들의 학문을 정리하였는데, 이들을 성호학파라고 부릅니다. 성호학파로 분류되는 제자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맹휴는 실용적인 학문에 뛰어났고, 조카



『성호사설』은 고대로부터 18세기 중반 까지 조선의 학문은 물론 중국 등 외국에서 전래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집 대성한 백과사전입니다.

인 이용휴는 천문학과 문학 분야, 이만휴는 경제학에 밝았습니다. 이중환은 역사학, 이철환은 박물학을 연구하였습니다.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역사학에 이름을 높인 안정복, 천문학을 연구한 황운대, 지리학을 연구한 윤동규 등도 성호학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실학의 무수한 별들을 길러낸 거대한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성호학파로 분류되는 학자 중 실학을 집대성했다고 일컬어지는 학자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는 강진에서 18년의 유배 생활을 보내면서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818년 57세의 나이로 유배가 끝나 고향인 남양주로 돌아온 이후에도 연구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신작, 김매순, 홍석주, 홍길주, 김정희 등 당시 저명한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꾸준히 하면서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문학, 철학, 의학, 교육학, 군사학,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야기
둘

강세황과 김홍도의 만남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문화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중 그림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강세황과 김홍도입니다. 이들은 스승과 제자 관계로 경기도 안산에서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볼까요?

강세황은 조선 후기 문인이자 화가이며, 평론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방면에 재능이 뛰어나서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가 소년기에 쓴 글씨로 병풍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활약한 18세기는 문예 부흥기로 불리는 시기로, 그는 스스로 서화를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연구하여 날카로운 평가를 하는 등 조선 후기 화단의 흐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명문 집안 출신으로 32세에 처가가 있는 안산으로 이사한 뒤 30여 년간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61세 이후에 뒤늦게 관직 생활을 시작 하였으며, 한성부판윤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진경산수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풍속화·인물화를 유행시켰으며, 새로운 서양 화법을 수용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영통동구도>는 그가 송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그린 진경산수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먹을 이용해 색을 진하고 옅게 칠하는 음영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이 살아있는 커다란 바위를 인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음영법은 서양에서 전래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화법이었는데, 산수화에 이런 화법을 처음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관심과 탐구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시도는 조선 후기 회화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제자였던 김홍도 또한 정조 대왕의 지시로 북경으로 가 서양 화법을 배워왔습니다. 김홍도가 서양 화법으로 그린 그림은 정조 대왕이 아버지 사도 세자의 명복을 비는 용주사에 있는 불화인 <삼세후불탱화>입니다.

강세황과 그의 제자인 김홍도는 당대 유명한 화가들과 서로 교류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바로 <균와아집도>입니다. 그림에서 안쪽에 책상에 기대어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 인물이 강세황이고, 통소를 부는 소년이 김홍도입니다. 그 외에도 심사정, 허필, 최북 등 당대의 시인, 화가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통동구도>



<균와아집도>

다. 이 그림은 강세황이 전체적인 구도를 잡은 후, 소나무와 돌은 심사정이 그렸고, 채색은 최북이 하였으며, 인물은 김홍도가 그렸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최고 화가들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세황은 김홍도가 어렸을 때 그림을 가르친 소감을 자신의 글에 썼습니다. 그 글에서 김홍도가 그린 그림에 대해 “가르치지 않아도 독창적으로 스스로 알아내어 교묘하게 자연의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 사랑은 그와 함께 그린 그림으로 남았는데, 바로 <송하맹호도>입니다. 그림 속 소나무는 스승인 강세황이 그렸고, 호랑이는 제자인 김홍도가 그렸습니다. 강세황이 그린 소나무는 줄기와 가는 잔가지가 운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김홍도가 그린 호랑이는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는 듯 꼬리를 치켜 올리고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습니다. 등을 굽어 올리고 앞발에 힘을 모으고 있는 자세에서 막 달려들듯한 긴장감을 느끼게 해 주는데, 호랑이 터력을 일일이 헤아리듯 수없는 복질하여 그려 얼룩무늬의 터럭 하나하나가 살아 있는 듯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강세황은 김홍도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내가 단원과 사군 것은 전후하여 모두 세 번 변하였다. 처음에는 단원이 내게 그림을 배웠으니 (사제로서 만났고), 중간에는 사포서에 같이 있었으니 (직장의 상하 관계로 만났고), 나중에는 그의 그림에 내가 평을 썼으니 우리는 (예술로서 만났다.)”



이야기
셋

진경산수화 속 경기도의 모습

18세기가 되면 문인들과 화가들이 중국의 산수화를 흉내 내어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주제로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을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경기도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도 진경산수화의 대상이 되어 많은 작품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 화가인 정선, 강세황, 김홍도, 정수영 등이 경기도의 자연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한강과 임진강 주변 등 강가의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경기도를 주제로 한 진경산수화의 특징은 중국 문인 화풍과 서양 화풍 등의 다양한 화법이 시도되었다는 점입니다.

1742년 10월 보름날 경기도 관찰사인 홍경보와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정선, 뛰어난 문장가인 신유한이 임진강 배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임진강 중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다는 지금의 연천군 일대인 우화정에서 웅연까지 배를 타고 경치를 즐겼습니다. 이 날의 배놀이를 정선은 그림으로 남겼고, 그림 위에 홍경보와 신유한은 글을 적어 행복한 한때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선이 그린 <우화정에서 배를 탄다>와 <웅연나루에 정박하다>라는 그림을 살펴볼까요? <우화정에서 배를 탄다>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중인 데 기암괴석이 연달아 늘어서서 장관을 이룹니다. 저녁 무렵 도착한 웅연에는 커다란 바위가 서있습니다. 먼 산들은 흐리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바위는 짙고 강렬하게 다가섭니다. 왼쪽 화면을 막아선 절벽과 오른쪽 하단의 수직으로 선 바위들이 그림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우화정에서 배를 탄다(좌),
웅연나루에 정박하다(우)

이윤영의 화적연은 화적이라는 바위와 그 아래 연못을 그린 그림으로 화적연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원하고 안정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정선 또한 화적연을 그렸는데, 정선의 화적연에 비해 이윤영은 담담한 선으로 화적연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강의 풍광을 그린 산수화를 감상해 볼까요? 정수영이 그린 <한임강 명승도권>은 광주를 출발해 여주와 원주 하류에 이르는 14군데 아름다운 경치와 임진강 상류, 시흥 관악산의 유명한 12군데 장소를 그린 16m 가까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는 1796년 여름부터 1797년 봄까지 3차례에 걸쳐 강을 따라 여행을 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선의 손자인 정황이 그린 <양주의 송추>는 북한산과 도봉산을 배경으로 양주에서 송추로 넘어가는 길목의 경치를 그린 것으로, 정선의 묘를 포함하여 정씨 집안 묘소를 그렸습니다.

이렇듯 이 시기 화가들은 경기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었습니다.





1. 경기도가 우리나라 실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강세황이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에는 직접 글도 썼는데 이것을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강세황처럼 자화자찬을 해 봅시다.

	강세황	나
자화		
자찬	<p>저 사람은 누굴까? 수염과 눈썹은 온통 희다. 머리에는 관리의 모자를 쓰고 있으나 웃은 평상복이라 우스꽝스럽다. 지금은 벼슬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벼슬을 탐하지 않고 고고하네. 가슴으로는 많은 책은 읽었고 그림은 친지에 이름을 떨치네.</p>	

3.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그리기 전에는 주로 많은 화원들이나 문인들이 산수화를 그릴 때 중국의 산수를 그렸습니다. 그 이전에 중국의 산수를 그렸던 이유와 정선이 우리나라의 산수인 진경산수화를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중국의 산수를 그린 이유

▶ 정선이 우리나라의 산수를 그린 이유

1. 실학은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오늘날 '실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면 어떤 분야의 학문일까요?

	현실의 문제	실학
예)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 배양하기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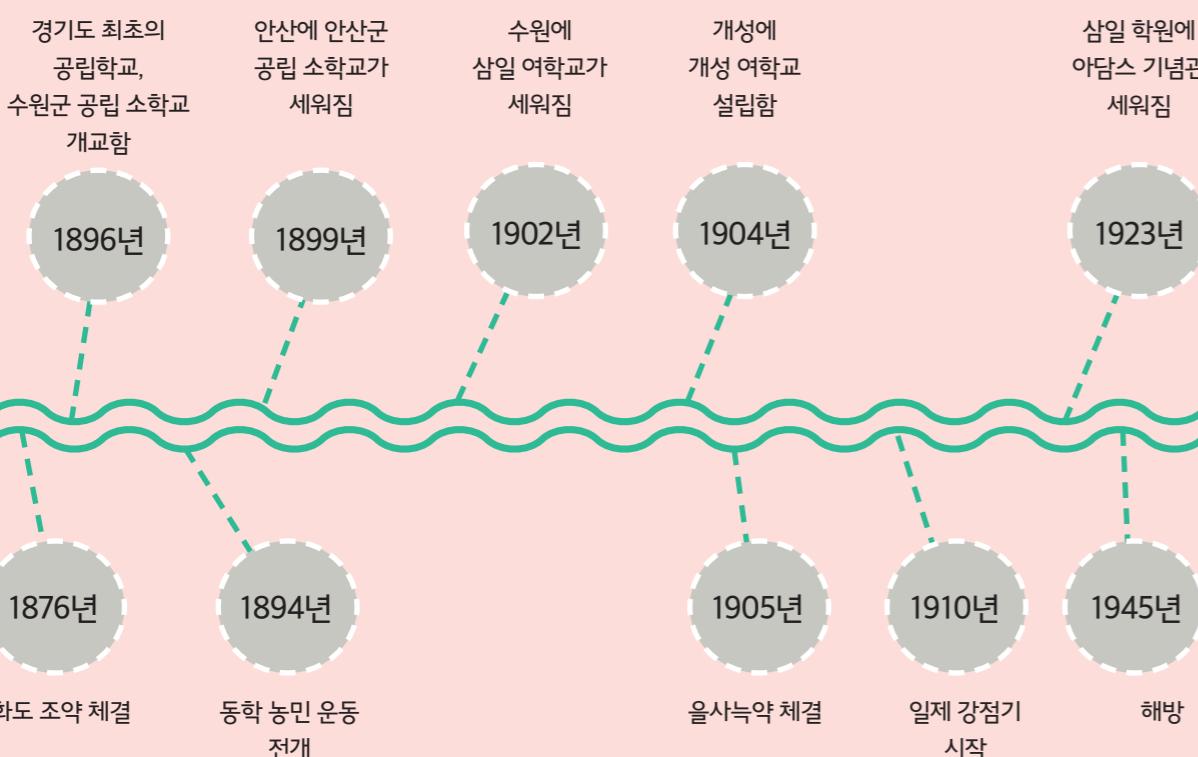
2. 강세황과 김홍도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강세황은 제자인 김홍도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였으며, 김홍도는 스승을 존경하고 배려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강세황이 김홍도를 세 번 만났다고 한 것처럼 그 선생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적어 봅시다.

- 처음 선생님을 만나 () 했으니
()이라 말할 수 있고,
() 했으니
()이라 말할 수 있고,
() 했으니
()이라 말할 수 있다.

근대 교육의 산실 경기도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하늘 천 따지 김을 현 누를 흥

이렇게 서당에서 무릎을 끊고 천자문을 외우던 서당은 우리 전통 교육의 대표적인 학교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실에서 책상에 책을 펼쳐 놓고, 의자에 앉아 칠판에 글을 쓰며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있는 교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로 개화되면서 근대 교육이 도입되었고, 당시 육영 공원, 배재 학당 등 학교에서 외국인 선생님이 등장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대 교육이 도입되면서 우리 교육도 전통 교육에서 근대 학문을 공부하는 학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도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한 근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 교육에 앞장 선 경기도를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경기도에 세워진 근대 사립학교



김홍도가 그린 조선 후기 서당 모습(좌), 개화기에 세워진 근대 학교 수업 모습(우)

조선 시대 청소년들이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려볼까요? 앞에 앉아 있는 훈장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끊고 책을 읽는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이때 공부 하는 책은 유학의 대표적인 경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책을 펴고 선생님의 지도로 국어, 수학 등 과목을 나누어 공부하는 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근대 교육이 도입되면서 왼쪽 사진과 같은 교실이 등장하게 되는데, 경기도에 근대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에는 실력을 키워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애국 계몽 운동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당시 전개되고 있던 애국 계몽 운동을 서울과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서울의 중앙 단체가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지방에 지회를 세우는 분위기에 따라 경기도에 여러 지회가 생기면서 다른 지역 뜻지않게 활발한 지역 단위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런 지방의 지회는 해당 지역의 애국 계몽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구심체 역할을 하였는데, 애국 계몽 운동 가운데 지역 단위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것이 바로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구국 운동이었습니다.

1910년 7월 경기도에 설립된 사립학교 수는 총 183개에 달하였으며, 37개 군 가운데 30개 군에 학교가 설립되어 경기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립학교 설립 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악이 가능한대로 각 군별 사립학교 설립 현황을 보면 수원, 개성, 안성, 용인, 이천, 가평, 포천, 양주, 파주, 고양, 장단, 양근, 시흥, 진위, 과천, 안산, 광주, 용진, 김포, 강화, 인천, 교하 등 22개 부·군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안산군에 설립된 사립학교 신문 기사를 살펴볼까요?

- ◆ 안산군 초지에 사는 이민선이 학교를 세우고 어학과 한학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점차 늘어나 40~50명에 이른다고 함¹
- ◆ 안산군 외리면 신각동에 사는 윤세영 등 7명이 발기하여 신영학교를 세우고 국문·한문·산술·체조 등의 과정을 설치하여 가르치는데, 학생은 40여 명에 이

른다고 함²

- ◆ 안산군 외리면 원상리 사립대성학교 군수 이석재는 주간 학생 31명, 야간 학생 21명으로 지난 달 27일에는 1학기 시험을 치렀는데, 주간 갑·을반 우등은 이상돈, 윤성한, 야간 갑·을반 우등은 손정일, 강삼봉 등이라고 함³
- ◆ 안산군 구룡동은 전 참판 김용진의 추향인데 동민들의 우매함을 개탄하여 동민 여러 사람과 협의하여 재정을 모아 사립 소학교를 건축하고 청년 자제를 교육한다고 함⁴
- ◆ 안산군 외리면 신각리 사는 전 감찰 함원식이 같은 마을 사는 이규신과 합심하여 학교를 세우고 정운업을 교사로 초빙하여 청년을 모집 교수하는데, 각종 경비는 모두 부담하고 마을 부근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름을 신영학교라 하였으며, 학생은 모두 60여 명에 달한다고 함⁵
- ◆ 안산군 북방면 이장 정규대와 고진국이 초동야학교를 설립하고 초동들을 모집하여 열심 교수하는데 학도는 40여 명이라고 함⁶
- ◆ 안산군 사는 전 승지 김용원과 송병섭이 협의하여 북방면 노산동에 신안의숙을 설립하고 교사를 초빙해 열심 교육하므로 학도가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함⁷



개화기 근대 학교의 외국어 수업 모습

² 〈매일신보〉 1908년 4월 22일
잡보

³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7일 잡보

⁴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8일 잡보

⁵ 〈매일신보〉 1908년 4월 22일
잡보

⁶ 〈매일신보〉 1908년 4월 22일
잡보

⁷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21일 학계

이야기
둘

근대 여성 교육을 선도한 경기도

조선 시대에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서당에서 공부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전근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시대 조차 여성들은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은 개화기 무렵이었습니다. 주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에서부터 여성들의 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당시 우리나라에서 여성 교육이 시작된 학교를 살펴볼까요? 먼저 이화 학당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세워진 학교로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여사가 1886년 서울 덕수궁 옆 정동에 세웠습니다. 경기도에 세워진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은 수원 삼일 여학교입니다. 삼일 여학교는 이화 학당을 세운 스크랜턴 선교사가 보시동 수원읍 교회(현 종로감리교회)의 초가집에서 여학생 3명으로 '삼일 소학당'으로 개교한 학교였습니다.



한편 1904년 미감리회 한국선교부에서 수원·이천 지역에 전담 선교사를 파송하자 수원 지역 선교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경부선이 개통되어 서울과 철도로 이어지면서 수원이 경기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고, 종로교회(현재 행궁 앞 삼거리 소재)도 교인 수 160명에 부녀자가 60~7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실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이 소식을 들은 스크랜턴은 학교 교실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한 끝에 장안동 95번지의 초가집과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06년 2월 북문 근처에 있던 교회가 종로로 이사할 때 남자 학당은 교회를 따라 옮긴 반면, 여자 학당은 장안동 새 부지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신문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수원부 내에 여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교사는 김매례 씨이고 학도는 48명, 학과는 국문, 한문, 영어, 산술, 체조인데, 교사의 열심 권학과 학도의 일진월보함을 찬상한다.
황성신문 1906년 9월 1일

여기서 '여학교를 설립하였다.'는 표현은 북수동의 남녀 학당 체제에서 비로소 여자 학당이 독립·이전하여 새로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신문에 여학당 설립 기사가 게재되고, 이어 수원군수가 학당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일 여학당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삼일 여학당이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여학교로 인정받게 되자 입학하려는 학생들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학당 운영에 필요한 선교비와 운영비는 미감리회 여선교회에서 부담하였는데, 1907년에는 밀러가 부임하여 낙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미감리회 여선교회장인 스크랜턴의 지원에 힘입어 수원 시내 중심가에 남녀 학당과 교회 건물, 선교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땅도 구입하였습니다. 이곳은 현재 매향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삼일 여학교는 점차 수원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1909년 4월 28일 학부(지금의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교과목으로는 국문, 한문, 영어, 산술, 체조, 성경, 음악, 재봉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현재는 매향여자중학교,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일 여학교에서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이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 1910년 3월 23일 삼일 여학교 첫 졸업생 5명 중 한 명인 나혜석이 있습니다. 그녀는 3·1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른 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신여성으로서 여권 신장과 남녀평등을 주장한 선각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1921년 첫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와 제국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 가지고 오신다더니~'라는 가사로 유명한 '오빠생각'이라는 동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동요의 가사를 쓴 분도 삼일 여학교 졸업생인 최순애입니다.



삼일 여학교의 옛 모습

이야기
셋

혁신 교육을 이끄는 경기도

혁신 학교라고 들어보았나요? 우리 학교가 바로 혁신 학교라구요?

요즘에는 지역마다 혁신 학교가 많지만, 이것은 최근 일입니다. 혁신 학교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혁신 학교는 어떤 교육을 꿈꾸는 학교일까요?

흔히 학교는 구성원과 신뢰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를 빚는 곳이자 가치 있고 행복한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존엄성, 소질, 꿈이 존중되어야 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르고 ‘참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생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 학교’를 생각하였습니다.



창의성이 꿈틀대는
교실 수업 혁신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최초로 13개 혁신 학교를 지정하고 혁신 학교 6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6대 중점 과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생산적인 학교 문화 형성, 대외 협력 참여 확대, 권한위임 체제 구축 등입니다.

나아가 2010년에는 혁신 학교를 43 개 학교로 확대하고 혁신 학교의 확산을 위해 거점 학교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혁신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예비 지정교를 신설·운영하였고, 또한 혁신 학교의 질 관리를 위해 혁신 학교 2년차 운영 학교에 대하여 중간 평가제를 실시하

면서 혁신 학교가 89교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에는 자율 경영 체제 구축, 민주적 자치 공동체 형성,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형성,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수정하고 혁신 학교를 154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혁신 학교 시즌 2’를 선포하고 혁신 학교 일반화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혁신 교육이 일반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신 학교 클러스터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혁신 학교는 230개교로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 혁신 학교는 327개교로 지정·운영되었습니다.

이처럼 2009~2014년 5년간 혁신 학교는 양적·질적인 발전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민선 3기 교육감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공약을 통해 혁신 학교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경기도 혁신 학교 사례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 민선 1기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무상 급식과 혁신 학교 도입 정책은 2010년 6월 2일 지방 자치 선거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6개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 학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 학교는 2010년 이후 서울형 혁신 학교(서울), 혁신 학교(전북), 무지개 학교(전남), 빛고을 혁신 학교(광주), 행복더하기 학교(강원) 등의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혁신 학교 운동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타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었고, 2014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 학교 운영을 공약으로 표방한 교육감이 대거(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 당선되어 전국적 확산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혁신 학교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이상적인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교육의 출발을 학생으로 보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을 생각하며, 학생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혁신 학교 수업 모습(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1.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학교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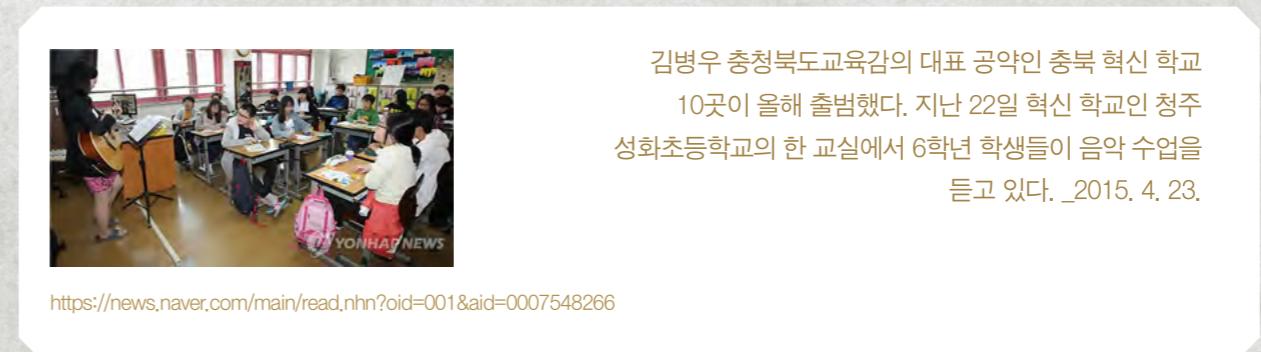
2. 당시 배운 과목과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과목을 비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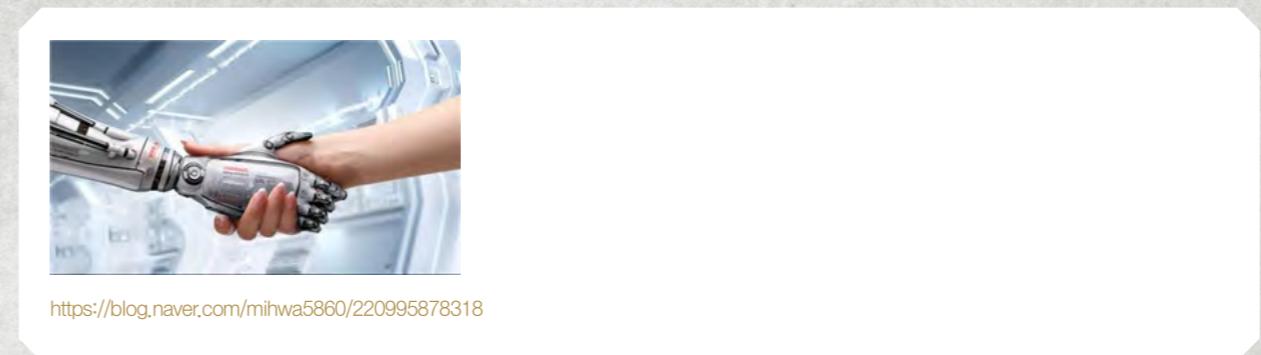
3. 근대 교과목과 현재 교과목을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어 봅시다.



1. 혁신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할까요?



2. 여러분이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외에 더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3.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사진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漢水以南稱為左道屬邑二十二以北稱為右道屬邑十五合為三十七宮

西抵大海南抵忠清道西止抵黃海道及海

戶內男二十八萬二千七百八十口女二十九萬四千十一口

兩千九百十二結八員八束

六百七十結六百七十七束內雜頓除

萬六千三百六十八結十九員七束

六騎三等馬四百四十九疋

上等九十一中等一百八十一下等一百六十七疋

戰船六隻

鐵原

金化

漣川

長湍

麻田

豐德

喬桐

交河

坡州

積城

高陽

通津

金浦

京都

富平

仁川

安山

陽川

廣州

龍仁

水原

南陽

振感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堤川

清風

竹山

安城

陽城

竹山

陰竹

利川

原州

평화와 혁신을 이끄는 경기도_1

13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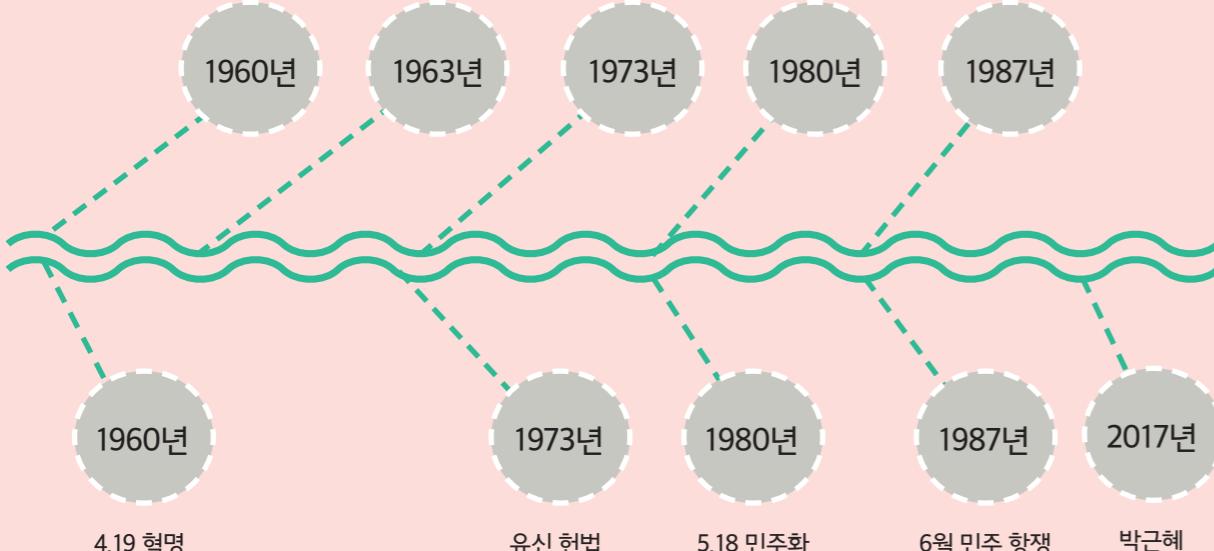
경기도의 민주화 운동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수원, 부정 선거 반대 운동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 운동
유신 헌법 반대 운동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 항쟁

1960년 1963년 1973년 1980년 1987년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 의원 등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사람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심부름꾼’이지요. 그런데 국민이 임명한 심부름꾼들이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거꾸로 국민을 부려먹고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독재자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위협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학생과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경기도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에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외친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학교에서 돌아온 진영숙은 엄마를 찾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를 볼 수 없자 그는 무엇인가를 바쁘게 연필로 적고는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남긴 이 편지는 그녀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미아리고개에서 버스를 타고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난 진영숙은 당시 한성여자중학교 2학년 2반 학생이었습니다. 진영숙 학생이 시위에 참가하기 전에 어머니께 남긴 유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어머님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 선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님, 시위에 나간 저를 꾸짖지 마세요.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다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결국 4·19 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났다.

4·19 혁명은 중학교 2학년 어린 학생도 부정 선거의 불합리함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의 독재를 물리친 4·19 혁명 현장으로 가 볼까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고 있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켜 당시 85세인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하면 모든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을 총동원해 조직적인 부정 선거를 펼친 것입니다. 여당 후보에게 미리 투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미리 잔뜩 넣어두는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부정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부정 선거에 많은 국민은 분노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학생들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수원농고 학생들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 선거에 분노하여 시위를 계획하였습니다. 3월 10일 수원에서 열리기로 했던 민주당의 마지막 유세를 기회로 학생들은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원농고 학생들의 시위는 선거 날인 3월 15일 이전에 이미 부정 선거가 저질러지는 것에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선거 당일인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공산당이 조종한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며 폭력을 써서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위 도중 행방불명된 16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김주열을 경찰이 바다에 몰래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4월 19일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시위대에 총을 쏘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진영숙 학생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외치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총을 쏘는 경찰을 학생과 시민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승만 정권에 분노한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를 외쳤습니다. 결국 국민의 요구에 굴복한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고, 자유당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를 간절히 바랐던 학생과 시민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야기
둘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다.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는 민족민주열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분들은 대부분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희생당한 분들입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묻힌 분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11월 3일 청계천 앞에서 근로기준법 법전을 품에 안고 몸에 불을 지르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다 숨진 전태일 열사입니다.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전태일 열사 묘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비록 정치적으로 독재는 했지만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인물로 높이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시기 이룩한 경제 개발

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며 생활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폐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부에 전태일 열사는 죽음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일한 만큼 대우 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에는 유신 헌법을 공포하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을 체육관에서 수천 명만 모아놓고 투표 해서 뽑는 방법으로 바꿔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많은 민주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마지막은 비참하였습니다.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1979년 10월 26일 밤, 부하가 쏜총에 맞아 사망하였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과 노태우 등 새로운 군부 세력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켜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광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간첩들의 조종을 받은 빨갱이 세력이 일으킨 난동’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1988년 숭실대학교 학생이던 박래전은 “광주는 살아있다, 군사 독재 정권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도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묻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폭력으로 잠재운 전두환은 다음 해 대통령이 되었고,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자신들을 반대하는 민주화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였지만,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7년 1월 경찰의 고문에 의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이었던 박종철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만적인 고문으로 꽂다운 대학생이 숨지자, 이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은 6월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6월 민주 항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위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쓰러져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더욱 크게 번졌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한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계기가 되었던 박종철도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다 숨진 수많은 분들의 묘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2017년 11월 옛 성남시청 앞 삼거리광장의 인도 한 쪐에 6.10 민주 항쟁을 기념하는 조그만 표지석이 설치되었습니다. 성남 지역 표지석 위면에는 ‘6.10 민주 항쟁, 8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성남지역본부 현장’이라는 문구가, 정면에는 ‘6월 민주주의 꽃이 피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또 다른 면에는 6월 민주 항쟁 당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 ‘호헌 철폐, 독재 타도’가 새겨졌습니다. 옛 성남시청 앞 삼거리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불씨를 뿜어낸 성남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군사 독재를 몰아내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6월 민주 항쟁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 공화국 실현이 깨어 있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박래전 묘역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에 목숨을 잃은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민주 인권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남시청 앞의 6월 민주 항쟁 표지석

이야기
셋

촛불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킨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 중에서 촛불은 아주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의 모습은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새벽의 빛이 오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2016년 겨울 전국을 환하게 밝힌 수백만 개 촛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몇몇 친한 사람들과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이려 했던 권력자를 몰아내는 거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세월호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유가족 앞을 지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3년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5대부터 9대까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의 딸로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였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를 묵살하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어 2015년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박근혜 정부는 전염병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하고 환자 발생 및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염병 퇴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병원체와 감염 경로를 확증하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확산 범위를 예측하고 중요 길목을 지켜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는 늑장 대응과 환자 감염 경로 파악에 실패하면서 환자는 늘어났고 사망자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환자 접촉을 통해 옮겨지는 전염병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해 전국의 대규모 축제·행사·공연 등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모든 국민의 일상에 전염병 공포를 불러왔던 참사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무능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집권 4년째인 2016년 중반부터 최순실이 관련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불거졌습니다.

최순실은 젊은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직책이 하나도 없는 순수 민간인인 최순실이 문화부와 관련한 스포츠 관련 재단 설립, 딸의 부정 입학, 심지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고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2016년 10월말부터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회에 실현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광장에 나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촛불을 든 젊은 부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광장에 섰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촛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2016년 11월 26일 열린 촛불 집회에는 전국에서 190만 명이 참여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가장 커다란 시위로 기록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전 세계 언론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 시위를 보도하였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놀란 사실은 수백만 명이 모인 시위가 질서 있게 전개되고, 사소한 폭력 행위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시위가 끝난 현장을 스스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우리 국민이 '깨어있는 민주 시민'으로서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는 국회에 전달되었고,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 9일에 가결됨으로써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함부로 자신을 위해 획득한 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사람이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일은 우리 역사, 아니 세계 역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2016년 11월 19일 열린 수원시 민 촛불문화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때마다 용기를 내고 일어나 부정한 권력자 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나라와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라는 말을 달고 살다가도 권력만 잡으면 부정한 독재자가 되는 인물을 우리는 어떻게 골라내야 할까요? 수많은 정치가 중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훌륭한 인물을 뽑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손에 쥐어진 투표용지 한 장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꼼꼼하고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 다음 동영상을 보고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를 적어 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0MX5wQtBA>) 박근혜 탄핵 심판 뉴스 영상

2. 다음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할 때 하는 선서입니다. 이 선서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 대통령들이 어떤 잘못을 했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염숙히 선서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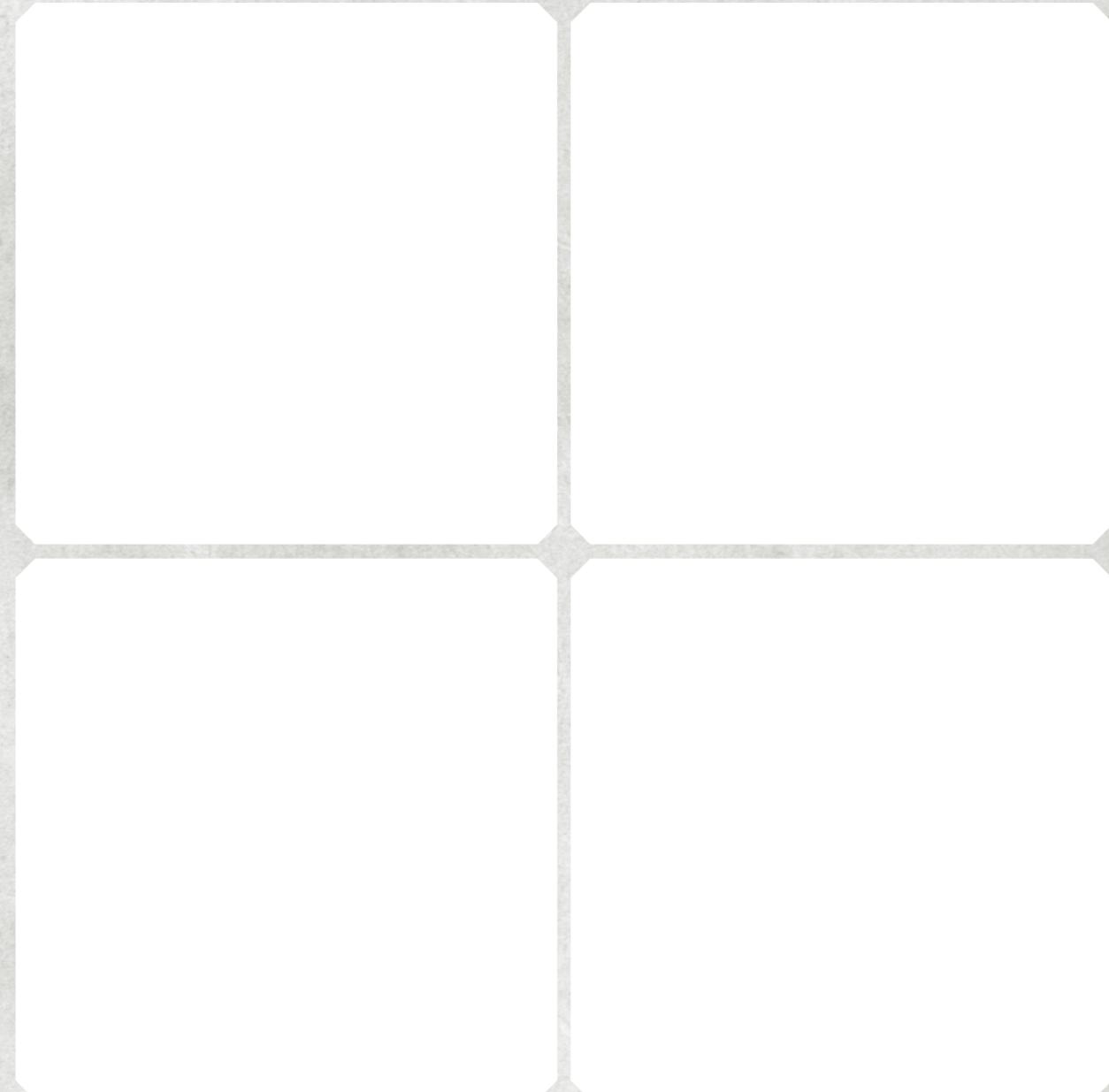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1.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과정을 요약하여 4컷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2. 내가 대통령이라면 6월 민주 항쟁 기념식에서 어떤 연설을 하겠습니까? 다음 6월 민주 항쟁 30주년 기념사를 참고하여 제시된 단어(10가지)들을 꼭 사용하여 6월 민주 항쟁 기념사를 작성해 봅시다.

제시 단어: 민주주의, 독재, 저항, 촛불 혁명, 박종철, 이한열, 대통령 직선제, 미래, 청소년, 희망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 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네타이 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 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 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 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중략)…

독재에 맞섰던 19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19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더하기



대한민국 대통령

입니다.

6월 민주 항쟁은

생각
더하기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남

1971년

원진레이온
폐업함

1993년

삼성반도체 근로자들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발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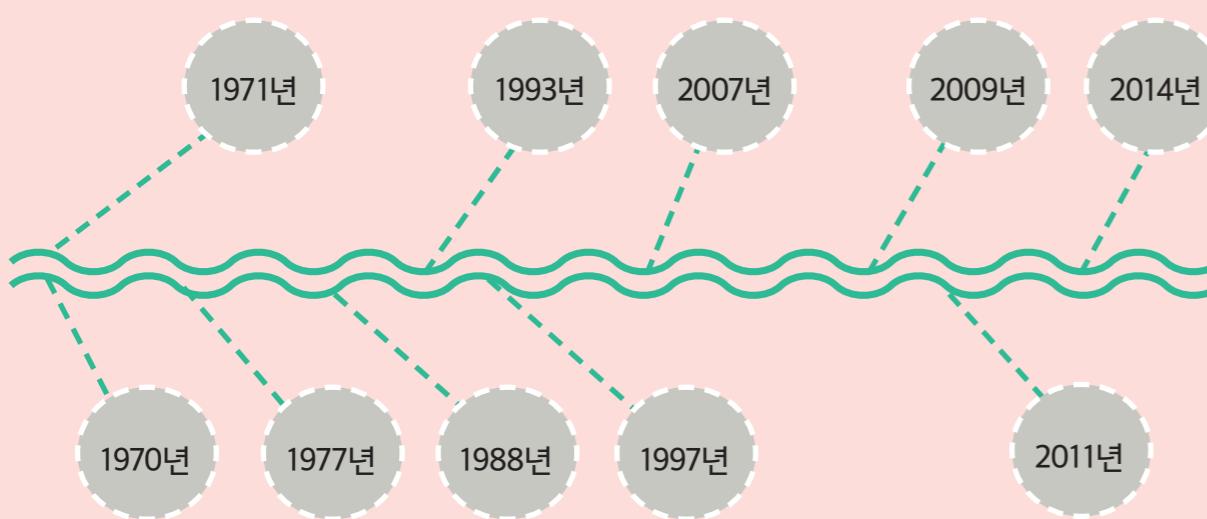
2007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구조정 됨

2009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함

2014년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보람된 일도 있었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받거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옆에 서 있어주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게 되면, 그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들을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광주 대단지 사건

경기도에는 성남시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남한산성과 함께 분당과 판교 첨단 테크노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년 전 성남시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남은 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아픔을 겪었는데,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 서울시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 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로 분리) 일대에 조성한 광주 대단지에 강제로 이주당한 철거민 10만여 명 중 수만 명이 8월 10일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저항입니다.



1971년 8월 10일 광주 대단지 사건을 보도한 당시 신문기사

당시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 1971년 8월 1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시 성남출장소(구 성남시청) 뒷산 공터에는 웅기 대회를 하기 위해 모인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1시에 주민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한 서울시장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서울시장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 외침은 다른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또 속았다, 내려가자!”

흥분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150m 아래 서울시 대단지 사업소로 몰려갔습니다. 내려가던 일부 군중은 서울시 소속 자동차(지프)를 밭로 차고 몽둥이로 부수며 개울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사업소로 몰려간 군중은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서 발생한 이날 사건은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일어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민중 봉기였으니까요. 당시 철거민들은 수도,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은 물론 생계 수단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토지 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를 독촉받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저항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 주인을 우습게 본 것이지요.

당시 사건으로 주민 22명이 구속되었고, 미성년자 1명과 무죄 확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20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들에게는 ‘폭동’ 또는 ‘난동’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강제 이주 사업 영향으로 성남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불편을 겪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2년 뒤 광주 대단지는 성남시로 분리되었고, 꾸준히 발전하여 지금은 인구 10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성남시는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한 기록마다 ‘폭동’, ‘난동’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다 사건 성격이나 의미도 규정짓지 못한 채 묻혀 있어 재조명을 위한 방법들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가 번번이 부결시킨 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광주 대단지’로 조성된 1970년대 성남시 모습(성남시 제공)

시 관계자는 “정부와 사법기관이 당시 형사처분한 사안을 지자체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은 국가 사무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시의회가 수차례 관련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부결시켰지만, 다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 안에서 실태 파악과 이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을 담은 조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예 회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
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절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의 경우 공식 통계가 처음 나온 1953년에는 67달러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으면서 60년 사이에 300배가 증가될 만큼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까지 겪은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가 빠른 성장을 이룬 것은 국민, 기업, 정부가 끊임없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의 뒷면에는 어둠도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 주역인 노동자들은 건강과 복지 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알아볼까요?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 등 삼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3월 황유미(당시 23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고 그의 부친이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발족되면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건강 문제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동안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였던 많은 노동자들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경기도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공장에서도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쌍용자동차를 생산하는 쌍용그룹은 본래 1970~80년대에 10대 재벌에 속할 정도의 대기업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인정 문제를 다룬 영화포스터

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그룹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쌍용자동차를 2004년 10월 28일, 최종적으로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판매 부진과 경기 악화로 쌍용자동차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주택융자금·학비보조금 등 일체의 복지 혜택을 회사측에 반납하는 한편 2008년 12월 17일부터 약 2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9일, 중국 상하이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쌍용자동차의 경영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심각한 경영난을 구실로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복지 혜택까지 반납하고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장을 점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회사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조합에서 점거 중인 쌍용차 평택공장의 직장 폐쇄를 감행하고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공장을 점거 중이던 노조원들을 최루탄과 테이저건 등을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회사와 정부가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많은 해고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야기
셋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 사망하고 실종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하였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하였는데, 이중 250명의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급격한 변침(선박이 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되었으나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골든 타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참사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영정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4월 16일에 시간이 멈춰버린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 속에 세월호는 큰 아픔으로 남아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할까요?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

말고도 수많은 참사는 있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조심하고 다시는 그런 아픔이 반복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비극적인 참사는 되풀이되어 많은 희생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는 이런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 우리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모습,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시 수많은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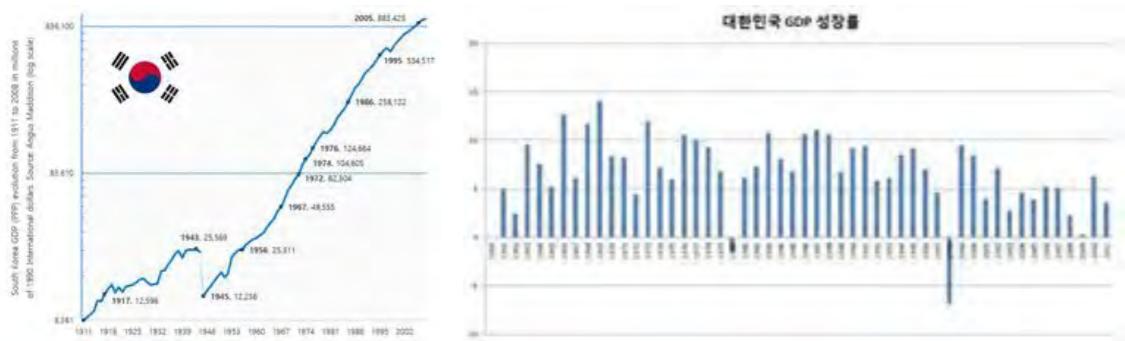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월호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아픔을 다시는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6~2017년 전 국민이 함께한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제자리로 바로 서게 하였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숨기려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심판하여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 촛불 행진에 가장 앞장선 분들은 바로 세월호 유가족이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차가운 바다 속에 스러져간 어린 학생들을 구하지 않았던 정부를 향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슬픔과 고통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과 함께하였습니다.



1. 다음 두 자료를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위 두 그래프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에만 해도 아시아 최빈국 중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전태일(1948. 9. 28. ~ 1970. 11. 13.)은 대한민국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 운동가, 인권 운동가이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봉사,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피복 공장에 취직하였다. 1965년에는 청계천 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돋다 함께 해고되었다. 이후 한미사의 재단보조로 있다가 재단사가 사장과의 갈등으로 해고되자, 그가 재단사가 되었다.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69년 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였다. 1969년 6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하고,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중 다시 왕성사의 재단사로 청계천으로 돌아와 노동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1970년 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 조건 시위를 주도하였다.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자살하였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11월 27일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노동 운동이 재확산되었다.

1. 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또래 친구들에게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알려 줄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과정〉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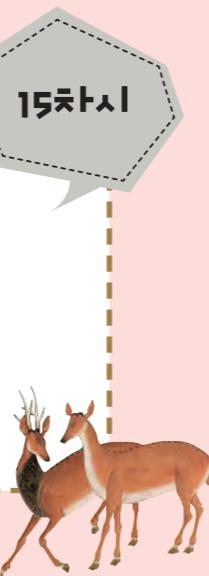


〈내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



평화와 혁신을 이끄는 경기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시화방조제 완공,
생태계 파괴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출범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우수 하천 용인시
경안천 선정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우수 하천 안양시
안양천 선정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우수 하천 성남시
탄천 선정

1994년

1998년

2015년

2016년

2017년

1993년

1997년

2000년

2007년

2018년

기후 변화 협약
가입

대한민국
람사르 협약
가입

6.15 남북 공동 선언

남북 정상 회담
2차례 실시

10.4 남북 정상 회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15차시

생각
열기



여러분, DMZ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우리 경기도는 휴전선을 끼고 있어 자연스레 비무장 지대인 DMZ가 있답니다. 6.25 전쟁이 휴전을 한 이후 지난 65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 곳이 바로 DMZ랍니다. 이런 까닭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에 생명이 자라고 온갖 식물과 동물이 한데 어울려 국제적 보호종, 위기종뿐만 아니라 많은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지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단군 이간 최악의 환경 참사, 시화호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경제 개발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고, 민주주의, 인권, 환경은 경제 개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렇게 전쟁 후 3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 선진국에서 공해 산업을 끌어왔고, 바다를 메워 농지를 만들어 국토를 넓히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믿고 무차별적인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고, 재앙을 겪고 나서야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지요. 바로 시화호를 통해서였습니다.

시화호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아주 커다란 인공 호수입니다. 1970년부터 계획된 반월특수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 일환으로 1987년 4월에 시작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동 방아머리를 잇는 시화방조제 공사가 1994년 1월에 완공되면서 생성되었습니다. 시화방조제 길이는 12.7km이고 시화호 면적은 43.80km²이며 총저수량은 332백만 톤입니다.



시화호는 본래 간척지에 조성될 농지나 산업 단지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조제 완공 이후 시화호 유역의 공장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으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람뿐만 아니라 물고기, 바닷새마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만을 주장한 인간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대로 알려 주었습니다. 물을 가둔지 2년 만에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변하였고 단군 아래 최악의 '환경 참사'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사람들과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결국 정부도 시화호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이후 해수를 유입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12월에는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를 확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안겨준 시화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다와 육지 연안 통합 관리가 시행된 곳입니다. 시화호와 시화호 유역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관련 부처, 기관, 지자체, 지역 사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1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시화호 해양 환경 개선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화호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화호의 생태 환경 복원입니다. 시화호가 자연 생태계를 스스로 회복해갈 때까지 인간을 위한 개발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화호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 개발, 주거지 개발, 도로 건설, 공단 조성, 레저 지구 조성, 대기질 관리, 생물종 보호 등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화호가 생긴 지 30년이 지난 지금 시화호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화호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순리를 그르칠 때 언제라도 다시 우리에게 재앙으로 경고를 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시화호에 가서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 바다와 바람, 그리고 새와 갈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며 깊이 그 해답을 새겨 보면 어떨까요?

**이야기
둘**

자연천 살리기 운동

우리는 경제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허물고 버리거나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천입니다. 하천은 원래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으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천을 자연 하천으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칼로 그은 듯이 물길을 내거나 시멘트로 빌라버리는가 하면 아예 하천을 덮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로 검게 썩어 악취가 나는 하천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복개되어 주차장이나 도로가 되어 하천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된 곳도 많습니다.

인간을 위해 한 땜의 땅이라도 더 활용하고, 사람들이 잠시라도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하천을 조작하고 개조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천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경관이 파괴되고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 하천은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990년대는 하천을 이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 차례 수돗물 파동을 거치면서 하천을 살리자는 주장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격적인 '하천 살리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단체들이 하천 탐사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습니다. 수원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수원천 복개에 맞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청주에서는 무심친 하상도로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즈음 환경부가 시범 사업으로 '양재천 자연 하천 사업'을 발주하면서 '하천의 생태'에 대한 관심과 '친자연형 하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하천 살리기 운동은 전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번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원천은 1970년대 초반까지 맑은 물이 흐르던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질이 급속히 오염되었고, 교통 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덮어버리자는 '복개론'이 강력하게 등장하였습니다. 수원천 복개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중반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수원천 복개 반대를 내세운 단체는 수원문화원이었는데, 소식지 『수원사랑』을 통해 1993년부터 복개 반대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비롯한 수원 지역 시민단체가 복개 반대 운동에 함께하여 '수원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대적인 복개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결국 1996년 수원시는 문화재를 지키고 수원천을 살리기 위해 수원천 복개를 철회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하천을 뜯어내고 자연석을 이용해 자연 하천을 조성하였고, 둔치에는 자연 초지와 자연석으로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천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울을 만들고 호박돌과 자갈을 깔아 수질의 자연 정화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곳곳에 징검다리도 만들고, 하천을 곡선으로 만들어 자연 하천의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수원천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물고기와 물새가 함께 살고 있는 도심 속의 아름다운 자연 하천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야기
셋

환경과 평화의 공간으로 되살아나는 비무장 지대 DMZ

비무장 지대는 영어로 Demilitarized Zone을 줄여서 DMZ라고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체결 당시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총 1,292개의 말뚝을 박고, 이 말뚝을 이은 약 240km 가상의 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무장 지대는 이 군사 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범위에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무장 지대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생태 환경을 지닌 곳이면서 통일의 꿈을 품은 한반도 역사·생태·환경 박물관입니다. DMZ 서쪽 끝인 한강 하류와 임진강 유역 등 그 주변 지역은 삼국 시대, 통일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며 오랫동안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DMZ가 지닌 역사성은 물론이고, 이 땅이 품은 자연 역시 이제는 어느 한쪽도 포기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비무장 지대

비무장 지대는 우리나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이가 155마일(248km)에 달하며 폭은 4km, 면적은 992km²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 65년 세 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자연 보전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비무장 지대는 산악 지대와 평야 지대를 가로지르며 그 사이에 계곡과 분지 그리고 여러 개의 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악 지대 생태계와 내륙 습지, 그리고 담수 및 해안 생태계가 함께 존재하는 생물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국제적 보호종,

위기종뿐만 아니라 많은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나 두루미류의 서식처 및 이동 경로여서 국제적 차원에서 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비무장 지대에서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2,900종 이상의 식물 가운데 1/3, 70여 종의 포유류 가운데 1/2, 320종의 조류 가운데 1/5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무장 지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

비무장 지대에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평화가 오길 희망하며 만들어 진 평화누리길은 아름다운 자연과 지켜야 할 역사, 문화가 담긴 길입니다.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총 551km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평화누리길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비포장 도로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 군 작전로 및 쓰지 않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친환경 길입니다. 평화, 안보, 생태, 역사 등을 연결한 접경 지역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길입니다.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14시 27분 DMZ 평화누리길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했던 판문점 선언(4·27 선언) 1주년을 맞아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DMZ 평화인간띠운동본부가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강화~고성 구간 500km를 1m 간격으로 손에 손을 잡고 늘어서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참가하였습니다. 이들은 500km를 10개 구간으로 나눈 평화누리길 가운데 사전에 신청한 지역에서 4월 27일의 의미를 살린 오후 14시 27분부터 서로 손을 잡는 인간 띠 잇기를 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모두들이 이 땅에 평화와 생명이 뿌리내리길 염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을 염원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
나누기



1. 다음은 비무장 지대의 멸종 위기 동물을 모델로 했던 2018년 크리스마스 씰입니다.
아래 빙판에 그 이름을 써 보세요.



2. 통일이 되면 비무장 지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정리하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기>

평화와 혁신을 이끄는 경기도_4

16차시

미래 산업의 중심, 경기도



경기 지역에는 무슨 일이?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 공단 가동

남북 철도
임시 개통

판문점 선언

2000년

2004년

2007년

2018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8년

한일 월드컵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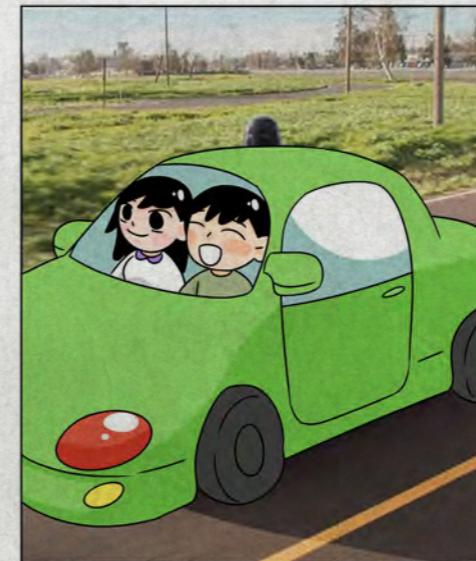
경부·호남
고속철도 개통

남북 정상 회담

평양 공동
선언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각
열기



운전자가 없는 자율자동차나 드론 낚시 등 미래 산업의 발달은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많은 일들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지로 34만 명에 가까운 아주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며, 그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개성 공단 등 남북한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중심지인 경기도가 미래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야기
하나

경기도 사감들이 만드는 미래 산업

미래를 주도할 산업을 말하면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으로 발현되고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 혁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키워드도 드론, 자율주행차량, 가상·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재난 현장 촬영, 환경 조사, 농약 살포, 자원 탐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택배 물품 배달, 측량, 촬영 등 드론의 활용 영역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는 드론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무인 항공기(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적으로 드론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2016년 국내외 유명 레이싱 선수들을 비롯해 2만여 명이 다녀간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는 초·중·고등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드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농작물에 농약을 뿌리고 있어요.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량은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KT, BMW 등 5개 기관은 2017년 판교제로시

티를 자율주행 시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자율주행 실증 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9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는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시승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제로셔틀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구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km 구간을 시속 25km 이내로 시범 운행하게 됩니다.

증강현실(AR)은 현실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입혀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며, 가상현실(VR)은 특정 장비를 통해 보여 지는 가상 환경, 즉 컴퓨터가 가상 환경 전체를 만들어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이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이 개발되었으며, 게임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과 결합되기도 하고, 의학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은 지난 2017년 5월 세계 최초로 태블릿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골종양 수술용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해 정강이뼈에 골종양이 있는 50대 여성 환자의 수술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야기
둘경기도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이주 노동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 1천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46만 6,9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는 88만 4천명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5만 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근무지역별 취업자는 '경기'(34만 5천 명, 39.0%)가 가장 많고, '서울'(16만 5천 명, 18.6%), '인천'(4만 2천 명, 4.8%)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62.4%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광·제조업'(40만 5천 명, 45.8%)이 가장 많고, '도소매·음식·숙박업'(16만 3천 명, 18.5%)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 2천 명, 16.0%) 순으로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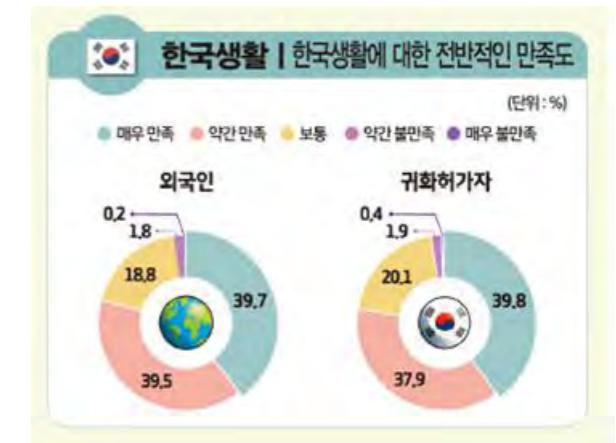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 79.2%, '보통' 18.8%, '불만족' 2.0%로 '만족'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 없음'(29.2%)이 가장 많고, '언어 문제'(25.4%), '외로움'(17.6%)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는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민자 인권 존중 및 차별 방지 제도화를 위해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를 위해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과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방안(2018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도내 7개 지역 외국인 복지센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688명을 대상으로 설문(1인당 2개 선택) 조사를 한 결과 한국 생활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58.4%가 '언어와 소통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번째로 23.7%가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 대우'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차이(21.9%), 의료비 부담(15.7%), 상담 서비스 부족(13.9%), 나쁜 작업 환경(13.1%)을 들었습니다. 특히 응답자 59.2%는 차별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 대우를 호소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았고, 나이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일수록 이 같은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 대우를 많이 겪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한국어 교육이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외국인 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건강권 보호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편견과 차별 대우 해소를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산시가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지원
본부

이야기
셋

개성 공단의 건설

경기도 북부는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현장입니다. 북쪽에 군사 분계선이 그어져 있고, 남북의 군사력이 집중 배치되어 긴장이 고조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북부 주민들은 행정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과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남북 관계가 대립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때에는 남북 교류의 통로가 되었고,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의 길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71년 8월 12일 남한이 제안한 남북직접자회담을 북한이 받아들였고, 8월 20일 6.25 전쟁 후 처음으로 남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노태우 정부 시기 1988년 7.7 선언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으로 정착되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2000년 6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또한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12월 말 완료하였으며, 최북단역인 도라산 역사는 2002년 4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남북 철도가 임시 개통되었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2004년 의류회사와 식기회사 등 18개사로 출범한 개성 공단은 폐쇄 당시 상주한

기업이 123사에 달하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남한은 32억 6,400만 달러, 북한은 3억 7,54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의 경우 국내외 공단보다 인건비가 비교적 낮다는 점 이외에도 노동자들끼리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서울과 지리적 인접성이 뛰어나 물류 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다는 점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 현황을 보면 북측 노동자는 2005년(6천 명), 2006년(1만 1천 명), 2007년(2만 2천 명), 2008년(3만 8천 명), 2009년(4만 2천 명), 2010년(4만 6천 명), 2011년(4만 9천 명) 등이었고, 2012년 1월에는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남측 노동자는 700~800명 정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 공단은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평양 공동 선언'에서 개성 공단 사업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개성 공단은 최초의 남북 합작 공단으로서 남북 화해 교류 협력 특히 남북 경제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첨단 산업은 사람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어 줍니다.
경기도는 어떤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될까요?

경기도의 첨단 산업

첨단 산업이 바꾸어 놓을 미래 경기도 모습

2. 남북한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교류를 통해 많은 산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남한이 인도와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육로로 관광하고 물자를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남북 교류를 통해 어떤 산업이 발달하게 될까요?



1.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간의 역할을 대신 함으로써 인간에게 보다 많은 여가를 제공하게 될까요? 아니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까요? 한 가지 입장을 골라 근거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가. 인공지능의 발달은

나. 그 이유는

2. 개성 공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었지만, 남북한 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 공장 가동이 멈춤으로써 안정적이지 못한 사업 운영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개성 공단을 가동하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어떤 약속을 해야 할지 개성 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공동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1.

2.

3.

경기도 역사여행 [사건 편]

집필진

김봉수(남창초등학교 교사)

김진호(원곡고등학교 교사)

신대광(원일중학교 수석교사)

조성래(남창초등학교 교사)

감수 경기도역사교과연구회

그림 원유미

만화 이우영

편집·디자인 세상의 모든 아침

1쇄 인쇄 2019년 8월

1쇄 발행 2019년 8월

편찬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전화. 031-231-8577

ISBN 978-89-999-0156-0 53910(￦]매품)

_이 책자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